

울산 시민교회 계간지

시민 누리애

세상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 사랑

2026.03. SPRING
VOL.9



CONTENTS

2026. 봄 Vol.9

누리아의 향연	03	시편 150편
목회 공감	04	찬송(찬양)에 대한 추억
쉬어가기	07	시민 최애 찬양
봄호 특집	08	새내기들의 싱글 목장 탐방기
집중 조명	18	찬양팀 (2부 / 3부 / 4부 / 수요일)
목장 탐방	30	또 놀러가겠습니다! - 최연식 목장
삶의 현장	35	살아 생명력 넘치는 불박이
쉬어가기	38	웹툰 - 걱정 말아요 그대
마음 나누기	44	생명의 삶 (이민희 / 윤말수 / 최재윤 / 조한나)
	52	예수님 영접모임
	53	미국 평신도 세미나
쉬어가기	60	시민 책방
	61	표지 그림 소개
환영합니다	62	강현수 목사님 가정
	64	윤현락 목사님 가정
신학 아티클	66	하나님의 뜻, 내 뜻 - 강성민 목사
	68	강한 세계와 위대한 세계 - 윤현락
문화 광장	72	음악 산책 - 2부 앙상블
	74	미술 정원 - 달리는 두 제자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다
	77	과학 플러스 - 뜨거워진 지구를 구하라
	80	건강 톡톡 - 치아균열증후군
	82	생각하는 독서 - 하나님의 마음 알기
동호회 소개	84	싱글 축구 동호회
쉬어가기	86	봄 독서 여행
우리의 도약	88	어노인팅 집회 / 성탄 발표회 / 송구영신 / 온하성 / 삶공부 수료
열방을 향하여	92	레소토 사역 - 김억수 선교사
쉬어가기	95	누리아 퀴즈
새 가족 소개	96	12, 1, 2월 새 가족 소개
편집 후기	98	문서사역부 일동



누리아의 향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찬송(찬양)에 대한 추억



담임 목사 김창훈

<시민 누리애> 덕분에 저의 삶의 갈피마다 새겨진 찬송(찬양)에 대한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순서 없이 마음의 호수 위에 떠오르는 ‘찬송’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건져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목회자가 되신 부친과 장로님-권사님 가정에서 자라신 모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찬송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가사를 읊조리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도 가끔 흥얼거리십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가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인 것 같습니다. 여쭙보지는 않았지만 새벽기도나 가정예배 등에서 이 찬송가를 선택해 부르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비음을 섞어 음을 꺾으면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를 부르시는 특징적인 창법은 제가 모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도 자주 부르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신 어머니도 생전에 찬송 부르기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진 않으셨지만,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서 풍금을 치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셨던 경력이 있으신지라, 나름 음악에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대학생 때는 종종 <한국-서양 가곡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셨고, 찬송은 아니지만 <보리밭>, <봉선화>, <목련화> 등을 즐겨 부르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찬송가로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등을 애창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양의 위대한 종교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지,

“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목회 공감

중학생인 저를 당시 마산 합성동에 있던 로얄 백화점 음반 코너로 데리고 가서 헨델의 <메시아> LP를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부터 듣다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했지만 중간 어디쯤 <할렐루야>가 나오면 어머니와 저와 동생이 지휘를 하며 신나게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제가 찬양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유치등부의 어린이 성가대에 소속된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주일에 부를 찬양을 연습하고, 유치등부의 주일예배 때는 연습한 곡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곡을 대표적인 곡으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창원대학교 성악과 대학생이셨던 지휘자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믿음도 자라나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스스로도 찬양을 좋아했지만, 저에게 찬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넓혀준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로 있는 안드레이의 세 누나였습니다. 안드레이의 집은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 누나가 클래식 음악과 CCM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클래식과 CCM 음악의 테이프와 CD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객석>이라는 클래식 음악 잡지를 그 집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 장, 장한나, 조수미, 사라 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이트만, 안네 소피 무터,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의 이름을 그 집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CCM에 대한 지식도 이 집의 누나들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 당시 찬양집회를 많이 열면서 찬양 앨범을 발매했던, ‘경배와 찬양’의 <전하세 예수> 시리즈, 최덕신이 세운 ‘주 찬양 선교단’의 <주 찬양> 1, 2, 3, 4집 앨범들, ‘옹기장이’, ‘예수전도단’의 <화요모임> 앨범, 박종호, 최인혁의 찬양앨범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CCM으로는 돈 모엔, 밥 핏츠, 론 케놀리 등의 찬양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사역 단체의 찬양집 시리즈를 자주 들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는 <유나이티드>와 <힐송>에서 나온 역동적이고, 화려한 찬양들도 접했습니다. 미국의 CCM 곡들은 상당수가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애창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전문 찬양사역팀이 늘어나고, 찬양집회도 많아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CCM과 교회음악 덕분에 기독교 복음을 접할 기회가 풍성해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음악이 너무나 쉽게 세상 음악 트렌드를 좇아 가는 듯한 분위기는 좀 아쉽습니다.

세상 음악의 수준과 기교와 트렌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음악의 독특한 내면과 함께 독특한 외면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양을 통해서나 자신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현대 교회 음악(CCM)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대와 찬양팀의 섬김으로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찬양을 듣고 감상하는 모습에서 진일보하여, 늘 하나님을 내 입으로 직접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습관을 지니셨으면 합니다. 다른 이가 만든 곡이라 할지라도 찬양이 내 영혼에서 나와 마음을 지나 입술의 소리로 발현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소리가 다시 나의 귀에 닿아 내 영혼으로 돌아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찬송)으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시민 최애 찬송 리스트

1위 : 은혜 (손경민/지선)

연약함, 회복, 감사와 같은 실제 신앙 고백이 담겨있어서

2위 : 요게벳의 노래 (염평안/최에스터)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함

3위 :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

※ 가수 및 버전은 명시된 것만 표기하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아요

충만 (손경민) /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손경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 변함는 주님의 나라와 (찬송가)
Through it all (영원한 생명의 주님)

마음이 힘들 때, 힘이 필요할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 주님은 신실하고 (스캇 브래너)
하루의 은혜 (F.I.A) /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어노인팅)
성도의 노래 (어노인팅) /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크신 내 주님 / 부르신 곳에서 /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난 예수의 날빛이요 / 어려운 일 당할 때 / 주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왜 슬퍼하느냐 /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할 때, 또는 불평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 감사송 /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기도할 때

주는 존귀하신 분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출근길, 일상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추억, 신앙고백이 담긴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어머니를 떠오르게 함) / 나의 사랑하는 책 (어린 시절)
축복의 사람 (김대한, 목자 목녀님을 볼 때) / 실로암 (예수님 첫 만남을 기억나게 함)
내 삶의 이유라 (신앙 고백이 담겨있어서) / 전심으로 (내 삶의 이유를 떠오르게 함)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유년시절 고향 교회)

봄 특집! 새내기들의

와우, 매주 밥 먹으러 가는 게 클라이맥스야!

최경열 (김수현 목장)

Q 싱글목장 올라오기 전 기대감은?

싱글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들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막 잘못 지낸다던가 적응 못해서 혼자서 짹짹매면 어찌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여러 형, 누나 분들도 만나보고 애초에 궁금하기도 했고 이참에 인맥도 더 다지고 가끔 뵈기도 했었다 보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Q 싱글 목장과 처음 만났을 때의 첫 인상은?

처음에는 굉장히 떨려서 아무 말 못 하고 우물쭈물 있었고 난 누구 난 어디로 가야 하나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목장의 킹! 김수현 선생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안녕~! 네가 경열이구나? ㅎㅎ" 이라고 인사해 주신 그 첫마디가 아직도 떠오르네요.



싱글목장 탐방기

그 후에 형, 누나 분들의 지시에 따라 같이 본당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이때 "어라? 다른 목장들은 다 교육관에서 하는데 왜 우리만 여기로 오지?" 했는데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목장은 항상 여기서 해 엄청 좋지? ㅎㅎ 이게 바로 우리 목장만의 특권! ㅋㅋㅋ" 거기가 본당 2층에 있는 곳이에요

으흠.. 아무튼 그렇다 말씀을 해주셨고 같이 따라 들어갔을 때 순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깨끗하고 그전과 달리 오히려 더 프라이빗해진 거 같고 너무 좋았어요. 만족도 업! 그리고 이제 간식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간식까지 줘? 이렇게나 많이? 선생님 말씀이 "아~ 우리 목장은 항상 이렇게 대화 토크 하면서 간식도 항상 이렇게 먹으면서 해. 그래서 매주 마다 간식 담당을 정하지"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대화한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진정한 힐링이지! ㅋㅋㅋ"

그리고 비전틴 때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리고 오늘 말씀 어땠냐, 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는데 항상 너무 짧고, 얘기를 더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는데 싱글이 되고 나서는 시간이 2시간으로 확! 늘어나니까 사람만 좀 적당히 있다면 하루 종일 나불나불 가능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목장 모임이 끝나면 항상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월 4회 매주 그렇게 먹으러 가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비전틴 때는 있어도 가끔? 아주 드물게 있었는데 매일 이렇게 항상 먹으러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항상 주변 지인들과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항상 매주 마다 주일을 기다리게 하는 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ㅎㅎ



계속 →

봄 특집! 새내기들의

Q 특별히 좋게 느껴졌거나 따뜻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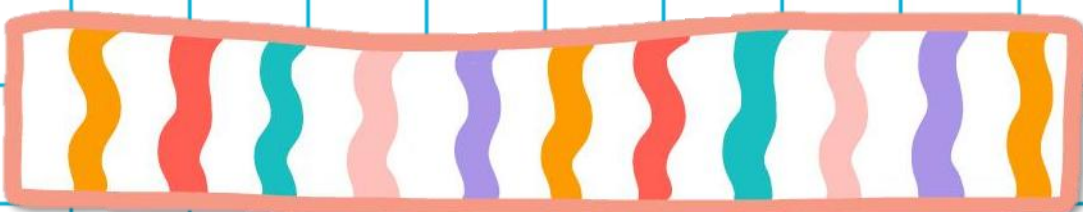
좋게 느껴진 것은 간식 먹으면서 토크 하는 것 그리고 토크 시간이 확 늘어난 것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면 밥을 먹으러 간다는 것,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느껴진 점은 저희 김수현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씨 (쌤 죄송해요, 고소하지는 말아주세요) 다정한 말투 그리고 다정하고 리더로서 끝까지 자신의 임원들을 잡아주시고 챙겨주시는 점이 너무 따뜻했어요. 절벽에 매달려 있으면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달려오셔서 구해주실 분이예요. 진짜, 그리고 다른 목장 임원 분들도 다 잘 챙겨주시고 유머러스하고 착하시고 배려심 넘치고 너무 재미있으신 분들이예요.

Q 싱글 목장이나 싱글 예배에서 느낀 은혜는?

최요섭 목사님도 그렇고 목장 임원 분들도 그렇고 항상 저를 잘 챙겨주시고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히 대해 주시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항상 같이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여러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Q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은?

군사학과로서 장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니 체력과 면접 필기를 다 통과해야만 장교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인데, 이 첫걸음을 잘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과 걱정과 기대감 불안감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감정이 들죠 ㅎㅎ.



싱글목장 탐방기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 볼까?

손창대 (김윤주목장)

싱글목장에 올라오니 고등부와 많은 점이 달랐습니다. 고등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텝 선생님의 관계로 주일마다 보았던 분들을 같은 목장의 일원으로서 만난다는 것이 새로운 기분이 들게 하였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신앙인으로 존중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도 청년으로 살아가며 마주할 현실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이 연결되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싱글만의 목장 모임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고등부 때는 목장 식구들끼리 나이 차이가 많아야 2살이었지만 싱글목장은 그 이상 나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교 생활, 군 생활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목장 식구들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할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부와 또 달라진 부분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게 되므로 나눔을 할 때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삶에서 온 목장식구들이 각자의 진지한 진로, 직장, 인간관계 등을 나눌 때, 저 또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고민을 목장 식구들 사이에 숨기지 않고 말해도 되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목장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평일에도 큐티하고 요약하여 올려주시는 목사님 덕분에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볼까'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싱글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 기도, 섬김을 통해 목장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를 바라보는 제 생각은 앞으로의 60년 70년의 신앙 여정을 계속 이어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 열심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봄 특집! 새내기들의



너무 시끄럽지도, 인원이 많지도 않아!

안은영 (성영재 목장)

싱글로 올라오며 가장 먼저 신경이 쓰였던 것은 목장이었습니다. 학생 때는 목장에 교육 목사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목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비전틴에서 함께했던 목장이 소중했던 만큼 싱글 목장도 좋은 곳에 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겨 주시는 싱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싱글 목장은 학생 목장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구나 싶어서 더 가족 같을 거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지망부터 신청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마음속으로 어딜 지원할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작위로 배정 방식이 바뀌는 덕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은 덜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수료 예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연락을 주신 덕분에 제가 어느 목장인지 남들보다 일찍 알 수 있었습니다. 수료 예배 때는 목사님이 선물도 들고 찾아와주셔서 놀랐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목장 모임 때 목원 분들을 처음으로 뵈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꽤나 낯을 가리는 편인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어색하기보단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으면서 따뜻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싱글목장 탐방기

저희 목장은 너무 시끄럽지도 인원이 많지도 않아서 내향적인 저에게 다행스러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지만 지금은 가끔 하는 취미로만 남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그래서 그 분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왠지 감사했습니다. 원래 계시던 목원 분들, 목자님과 신입생들의 나이차가 꽤 나는 편이기도 한데 기댈 수 있는 목장을 원했던 제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 같아서, 더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타지로 대학을 가지만 매주 올 수 있는 거리여서 계속 목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불안했는데 목장 덕분에, 교회 덕분에 훨씬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장과 싱글 공동체가 저에게 더 가족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싱글 생활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

박하빈 (손이레 목장)

싱글 목장에 올라오기 전 고등부에서와는 달리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한편,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 공동체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싱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예배 시작 전 곳곳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며 걱정보다는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진심 어린 찬양과 목사님의 친근하면서도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 첫 예배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봄 특집! 새내기들의

예배 이후 목장 모임에서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잠시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꾸며 보이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에서 편안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각자의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까지 그리고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스스럼없이 나누고 공감해 주는 모습 속에서 이 공동체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싱글 목장에 출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목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더라도 신앙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싱글 목장에서 경험한 예배의 은혜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YES



싱글목장 탐방기

기도의 동역자, 목장식구들이 생겨 든든해요!

송주미 (이찬진 목장)

싱글로 올라와서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이찬진 목장의 송주미입니다. 작년 비전틴 목장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싱글 목장으로 올라오면서는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혹은 '입시'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지닌 비전틴 목장과 달리,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싱글 목장 식구들과의 모임은 어떤 감사로 다가올지 기대되는 마음도 컸습니다. 드디어 최고 선배에서 벗어났다는 기쁨과 함께 막내로서 누릴 수 있을 은혜들을 상상하며 싱글 목장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싱글 목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따뜻했습니다. 이미 목장 안에서 끈끈하게 형성된 관계로 인해 신입생이 적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목장 식구들은 저를 친한 동생처럼 편안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웃으며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 이런저런 꿀팁이라며 해주신 이야기들은 입학 앞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목장 식구 모두는 자신의 삶을 과장이나 꾸며냄 없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장에서 흔들림 없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제 신앙생활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기 바빴던 저에게는 이런 목장의 분위기가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 생긴 의문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가 부족했다면 다음 주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끝이 없는 달리기를 함께할 목장 식구들이 생겨 매주 든든하고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며 또 신앙의 홀로서기를 시작하며 넘어지는 날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봄 특집! 새내기들의

주시는 목장 식구들이 있기에 그리고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감사로 20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 준 목장 식구들께 그리고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

정다혜 (정민국 목장)

싱글목장에 올라오기 전, 저는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넘어 서로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고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기대했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와 상황 속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싱글목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인상은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하게 된 정민국 목장은 목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밝고 유쾌하셔서 늘 웃음이 넘치는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동시에 각자

싱글목장 탐방기

의 생각과 나눔이 깊어 제가 기대하던 공동체의 모습과 잘 맞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싱글에 올라온 지 5주가 된 지금은 매주 목장 식구들과 어떤 맛있는 밥을 먹을지, 어떤 삶을 나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싱글 첫 예배를 드리기 전 주에 목사님과 목원 분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세심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모습을 통해 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와 다른 목장 친구들에게 우리 목장을 자랑하기도 했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정식 목장 모임을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막내라고 마음껏 누리라며 식사도 자주 챙겨 주셔서 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싱글 예배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매주 큰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큰 용사여’라는 주제로 들었던 사사기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스스로를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만 여기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기드온을 향해 먼저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은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깨달음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고등 시절 교회에서 예배팀의 리더로, 또 목자로 섬기며 부족한 실력의 제 모습을 보며 과연 이런 나의 모습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저에게 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다는 용기를 얻게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특히 하나님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큰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학교에서의 삶과 예배를 통해 지식으로 아는 신앙을 넘어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 2부 예배 찬양팀

- 박이니 목녀

Q 2부 찬양팀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2부 찬양팀은 리더 서민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싱어 5명과 악기 파트 3명, 총 9명의 팀원이 함께 섬기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연습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찬양팀으로 섬기게 된 계기와 부르심은 무엇이었나요?

반주를 위해 일찍 교회에 도착할 수 있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계기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찬양팀 사역 중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찬양을 통해 가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함을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연습과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나 예배의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최근에 불렀던 찬양 '깊도다'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사가 마음에 남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Q 2부 찬양팀이 꿈꾸는 앞으로의 사역 방향이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찬양을 잘하는 팀이기보다,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겸손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Q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찬양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 3부 예배 찬양팀

- 신광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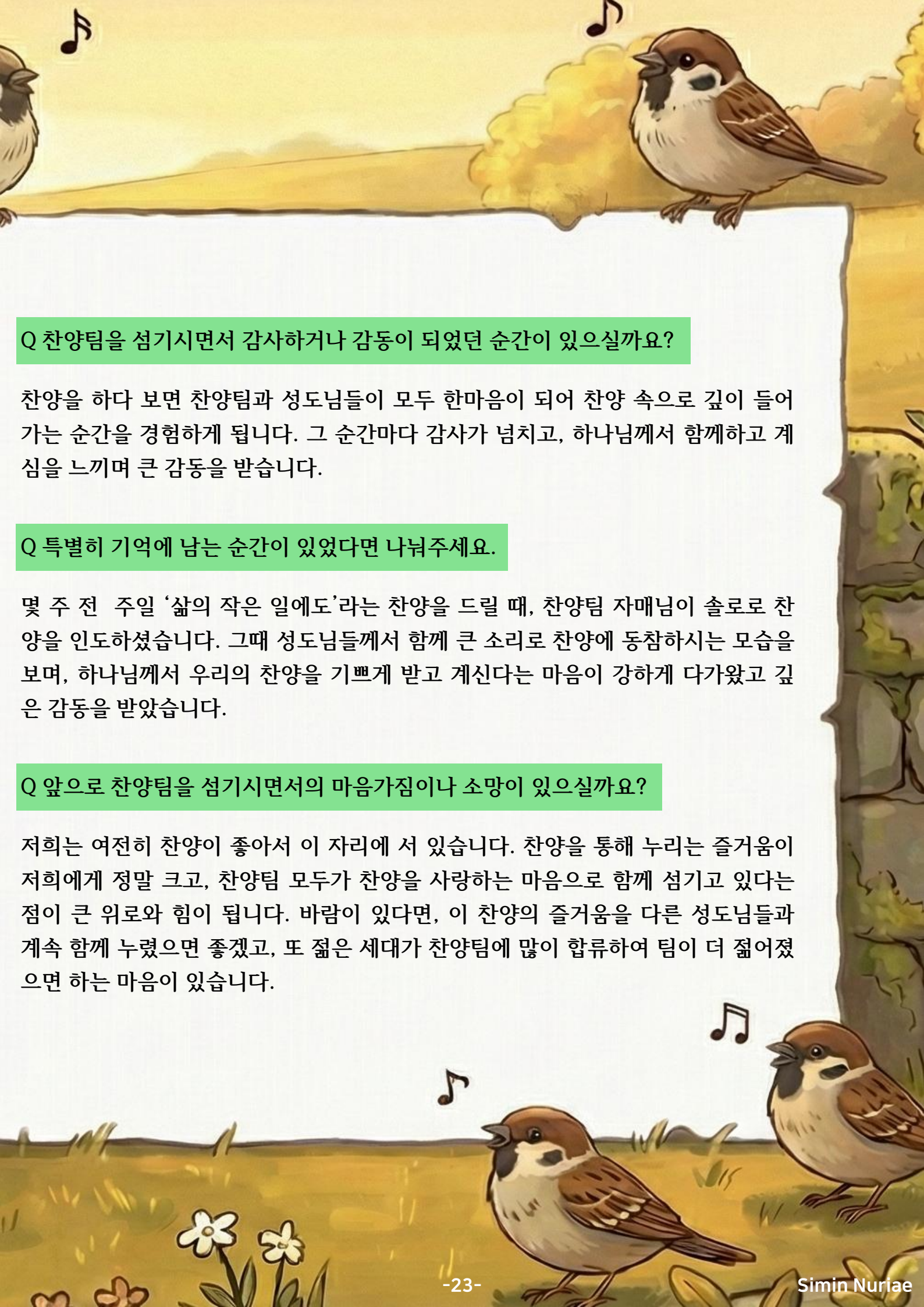
Q 집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부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신광순 목사입니다.

Q 주일 3부 찬양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3부 찬양팀은 새로 오신 윤현락 목사님의 리더로 악기팀 5명, 싱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기는 베이스 기타, 통기타, 메인 건반, 세컨드 건반, 드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싱어는 여성 4명, 남성 1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Q 찬양팀을 섬기시면서 감사하거나 감동이 되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팀과 성도님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눠주세요.

몇 주 전 주일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을 드릴 때, 찬양팀 자매님이 솔로로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고 계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Q 앞으로 찬양팀을 섬기시면서 마음가짐이나 소망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여전히 찬양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이 저희에게 정말 크고, 찬양팀 모두가 찬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있다는 점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찬양의 즐거움을 다른 성도님들과 계속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또 젊은 세대가 찬양팀에 많이 합류하여 팀이 더 젊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Q 인터뷰를 보시고 찬양팀 사역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 연습 일정도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3부 찬양팀은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최근에는 토요일 오후 4시~5시경 연습을 시작하고, 주일에는 오전 11시 5분에 모여 한 번 더 맞춘 뒤 본 예배에 들어갑니다.

현재 특히 드러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부와 3부 모두 드러머가 필요하지만, 특히 3부가 절실합니다. 혹시 드럼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원하셔서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Q 3부 찬양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마음이 한마음이 되어 선을 이룰 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주 기꺼이 시간을 내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에서 계시는 찬양팀 분들의 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 4부 예배 찬양팀

- 성영재 목사

Q 안녕하세요? 4부 찬양팀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싱글 4부 찬양팀 이름은 '뜨루'입니다.(Through = ~을 통하여, 귀엽게 발음) 저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길 바라고, 또 저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신앙을 더욱 강하게 붙들 수 있게 돕는 동역자가 되어, 찬양하는 것을 진실로 기뻐하는 찬양팀입니다.





Q 아멘! 얼마 전에 뜨루 찬양팀이 송구영신예배 찬양 인도했었는데, 힘들진 않았나요? 특히 준비하는 중 마음가짐이나 이후 감사했던 점들이 있나요?

우선 찬양을 준비하는 일은 매년 2회 있는 수련회처럼 준비했습니다. 2달 전부터 콘티로 준비하고, 1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부터 밤까지 섬김의 마음으로 연습하고 자리에 섰습니다.

‘내 영혼의 찬양집회’를 인도하기 전에도, 인도할 때도 매주 4부 예배의 찬양을 드릴 때처럼 같은 마음가짐으로 나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연다는 마음으로, 더하거나 덜하기보다 어느 자리에서 드리든 같은 예배와 찬양이라고 생각하며 인도했습니다. 인도할 때 마음가짐은 같았지만, 끝난 후에는 조금 특별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일 남았습니다. 찬양의 자리를 제안해 주신 목사님들과 준비를 도와주신 간사님, 사역자분들, 같이 고생한 찬양 팀원들, 즐겁게 함께 찬양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일 남았습니다.





Q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뜨루 찬양팀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평소에도 주중에 모여 연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찬양팀 연습은 매주 토 오전 10:00~12:00, 일 12:40~1:40에 진행합니다.

Q 매주 모여 연습하기 힘드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모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찬양 연습은 항상 저희끼리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난 후에는 찬양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섬김의 마음과 찬양사역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감사함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매주 콘티를 듣고, 묵상하며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매주 연습하며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Q 청년의 때에 바쁜 일상을 살며 주말에 쉬고 싶은데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뜨루 찬양팀에 복에 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 수요 예배 찬양팀

- 최안식 집사

Q 수요 찬양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요 찬양팀은 수요기도회 시간에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김진원 전도사님과 강현수 목사님께서 돌아가면서 섬기고 계시고, 7명의 싱어팀과 10명의 악기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악기팀은 A팀과 B팀으로 나뉘서 2주에 한 번씩 섬기고 있습니다. 뜨겁고 간절하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Q 매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찬양으로 섬기시기 힘들진 않나요? 특히 준비하는 중 마음가짐이나 감사한 점들이 있나요?

팀원들이 주로 직장인들이고 주중에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 퇴근하자마자 부리나케 달려와서 악기로 싱어로 섬기고 있는데요. 가끔 퇴근이 늦어지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달려오게 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미리 부를 곡들을 알려주셔서 주중과 수요기도회에 오기 전까지도 계속 찬양을 듣고 연습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들을 수 있게 사역을 맡겨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Q 수요 찬양팀은 언제 모여 연습하나요?

찬양팀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7시 10분까지 본당에 모여서 준비 합니다.

Q 매주 모여 연습하기 힘드실텐데 대단하십니다. 모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다른 날 따로 모여서 연습을 할 수 없으니 평소에 각자 개인적으로 찬양을 불러보고 악기를 연습해서 준비해 오게 되는데요. 저도 작년부터 수요 찬양팀을 섬기면서 놀랐던 건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꼼꼼하게 찬양 준비를 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악기팀 사역자분들께서 연주를 준비해 오는 것을 보면 원곡에 가깝도록 준비해 오십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불러보면 서로의 약속을 맞춰보는 정도로만 해도 될 만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에는 연습을 하기보다 정말 실제 찬양의 시간처럼 뜨겁게 찬양하며 준비합니다.



또 놀러가겠습니다!

- 최언식 목장 -



문서 사역부를 섬기기로 결단한 후 처음으로 받은 역할이 목장 탐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첫 탐방지가 최언식 목장이었습니다. 최언식 목장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믿음을 키워준 친정 목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탐방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설레고 가벼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8시까지 복구에 있는 최언식 목사님 댁으로 가야 했지만, 아직 구영리를 벗어나지 못한 저희 가족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목녀님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희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간당간당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진행하고 계세요. 얼른 가겠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와도 괜찮다는 목녀님의 답장이 왔고, 곧이어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파트 출입을 위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기 전 재차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어~ 어~ 괜찮아. 어차피 우리 분위기 알잖아? 허허허”

장난스럽지만 배려심이 가득 묻어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여전하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분가전, 최언식 목장 목원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장 탐방



PM 8시 6분. 익숙하게 아파트의 빈 주차 자리를 찾아 주차를 하고 목자님 댁으로 들어섰을 때, 매주 찬양도 함께하고 킹즈 베이비 사역도 같이 섬기고 있지만 마치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웰컴 어묵을 내어 주시더군요. 얼떨결에 손에 웰컴 어묵을 들고 둘러보니, 노영희 자매님께서 일터를 마치고 바로 오시느라 저녁을 드시지 못해 목장 모임 전에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분가하기 전 함께한 시간이 길어서인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최안식 형제, 장지은 자매 가정도 도착했고, 이날은 양기환 형제와 박미연 자매 가정, 김다정 자매 가정 그리고 최산하 자매 가정이 참석이 어려워 네 가정이 함께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축복송으로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안식 형제님의 기타 반주에 맞춰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두 팔 벌려 축복한 후, 본격적인 목장 모임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안식 형제님의 인도에 따라 ‘그 사랑’, ‘깊도다’를 찬양했는데, 음악 관련 사역

을 섬기는 분들이 많은 목장이라 그런지 더욱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찬양 가사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 그리고 절실한 간구가 어우러져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공동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더욱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다과를 함께 나누며 한 사람씩 자유롭게 진행된 나눔 속에는, 평소 생활 가운데 무심코 드러나는 본성과 속사람에 대한 회개,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간구, 세상일에 부딪혀 무너진 신앙의 회복 등 무겁고 숙연한 마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위트 있는 반응들 덕분에 진지하면서도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깊이 젖어 저와 아내는 목장 탐방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안식 목장 목원들보다 더 긴 시간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탐방



박이니 목녀님께서서는 나눔 중에, 비신자가 하나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 목자로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뭉클함을 느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오히려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형식에 얽매어 습관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많다는 이유로 화상 모임을 주로 해오던 저희 목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대면 모임을 통해 오가는 생생한 반응과 즉각 전달되는 진심이 목장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형태와 방식은 달라도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헌금을 하며 모든 목장 모임 순서는 끝이 났습니다.

구김 없는 따스함과 깨알 같은 장난기, 감동이 흘러넘치는 찬양,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날것의 나눔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장 탐방을 하는 내내 10여 년 전의 목장 모임과 오늘의 목장 모임이 계속 겹쳐지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특별하고도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비신자였던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그 따듯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나눔의 소중함과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들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최연식 목자님과 박이니 목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놀러 가겠습니다.



살아 생명력 넘치는 불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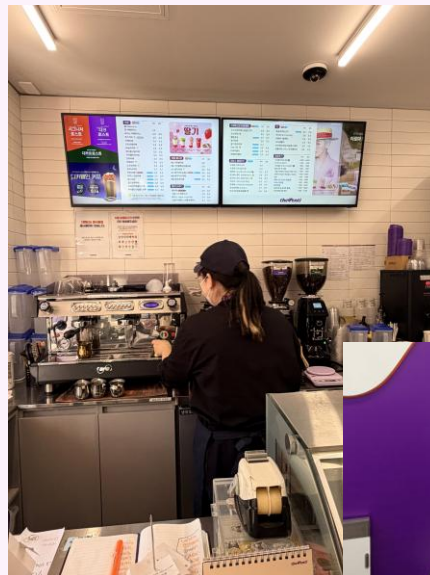
정혜민 집사

김수현 목장



더벤처 카페는 무거동 위브 자이 아파트 상가 입구에 있는 소담한 카페다. 보랏빛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자마자 반가운 시선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몇 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혜민 집사님의 역동적인 일상을 성도님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침 막냇동생이 시집가서 남창에서 더벤처를 오픈했어요. 동생이 2년 차 정도 되자 옆에서 하던 걸 지켜보던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베이킹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후 회사를 몇 년 더 다니면서 ‘일을 할 거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반갑습니다. 혜민 집사님, 혼자서 이 카페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결혼하고 10년 정도 화학 관련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에 너무 매이는 것 같고 좀 자유롭게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Q 카페를 오픈하고 힘든 일은 없었나요? 종업원도 두지 않고 혼자 하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삶의 현장

네, 사실 회사를 다닐 때는 아이와 함께 해 주지 못한 시간이 많아 미안했습니다. 자유롭게 가게를 운영하면 아이에게 더 시간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시간을 더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카페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라서 스스로 잘 챙기니까 괜찮은데 처음 시작하고 1년 정도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카페 차린 것이 잘한 건지 후회도 되고 아이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Q 네, 직장 맘의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혼자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혹 누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지는 않았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제 처지를 아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변 도움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제가 저질렀다는 것을 가게 시작하고야 깨달았습니다.(웃음) 친정식구들이 가까이 있어 이 일을 해 낼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품앗이 수준으로 부려먹었다고 해야 하나요.(웃음) 지금도 친정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지지가 컸다고 봅니다. 처음에 자신 없어하던 저에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게 힘이 되었습니다.

Q 저희들이 지켜보니 집사님께서 쉴 사이가 없네요. 테이크아웃 손님들이 줄을 잇고 배달 주문도 많네요. 혼자서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혹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께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요?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은데요.(웃음) 1년 정도는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게에 제가 일하는 사장이다 보니 불박이장처럼 묶여 있어요. 우리 카페는 저가 커피다 보니 종업원이나 알바를 쓰면 인건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불박이가 되어 일해야지,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어요. 다른 점주들 보다는 제가 더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니까요. 그래서 간혹 직장이 더 나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Q 카페를 몇 년째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혹 인상에 남은 손님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 카페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손님은 말을 거는 걸 싫어해 딱 커피만 가져가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말 한마디라고 걸어주는 걸 반기시는 분도 계세요.



삶의 현장

또 주변에 병원들이 있다 보니 고정시간에 찾아주는 분들, 단골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몰토크를 하게 되죠.

저는 제 주위에 거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신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도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참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커피를 사러 오셔서 오히려 내 상태를 걱정해 주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이 꽤 되어요. 그분들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도, 가령 “저 지금 목장에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손님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목장이 뭐예요?”라고 묻게 되죠. 그러면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신앙과 일터를 접목해서 생활하다 보면 헤진 집사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 같은데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가게를 차린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다가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틸 때도 있었고, 침체기도 간혹 오고, 매출이 안 오르면 일희일비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목장에서 지지해 주고 직장 다닐 때보다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더 저희 집을 자주 오픈하게 됐어요.

목장에서 제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 주니까,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가게에 매여 있다 보니 목장을 잘 섬기고,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게 많이 부족했거든요. 이제 제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뭐랄까, 안정감도 생기고, 개업할 때 감동받았던 말씀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신기한 게 남편도 저처럼 동일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시민 공동체와 목장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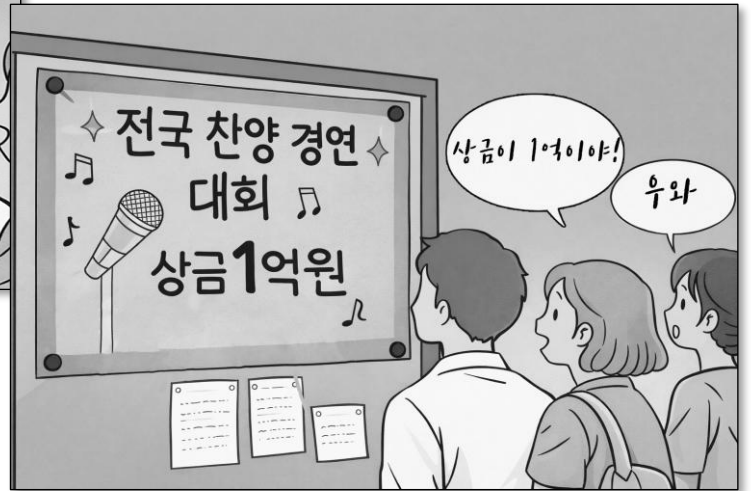
Q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혹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 더벤티에 충실하면서 제 2의 사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Q 바쁜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헤민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에 머물지 않고 기대하시는 사업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벤티 카페를 나서면서 시민공동체의 젊은 역동성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지체에게서 또 다른 희망과 기쁨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걱정말아요 그대



네, 정말 찬양을 사모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하늘의 천사들도 여기 글로리아 홀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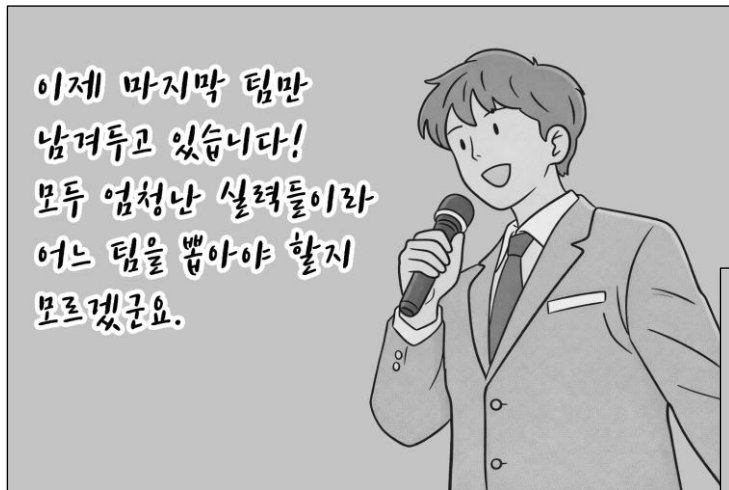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팀 참가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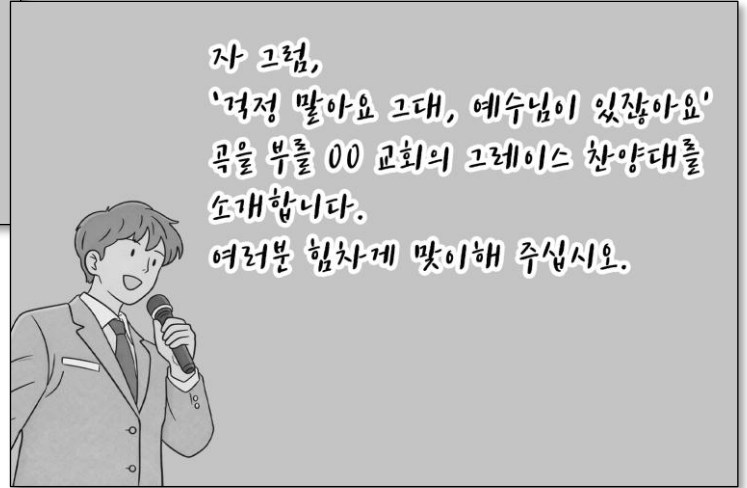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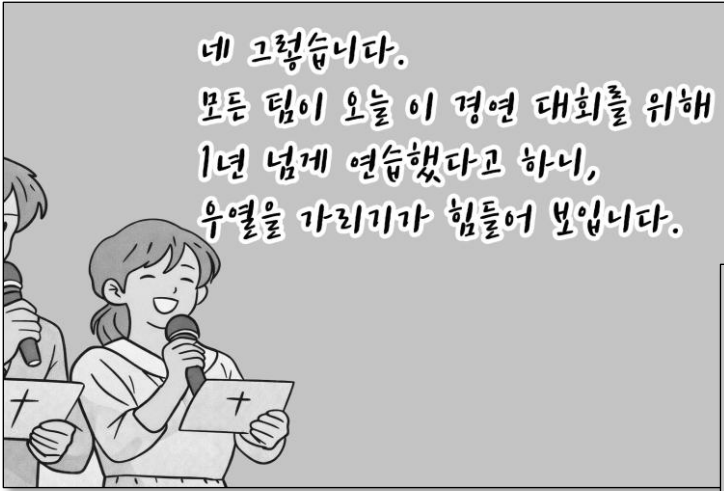


00교회의 '말씀 앞에서'를 부를
헵시바 찬양대입니다.!

짝, 짝, 짝, 짝







갑자기 찬양대의 소리는 점점 화음을 벗어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범벅돼 화음은 깨지고,
목소리들이 잠겨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는다.

...♪...



당황한 지휘자는 그래도
지휘를 멈추지 않는다.

♪ 전국 찬양 경연 대회 ♪

.....



관중석의 관중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더니
일제히 일어나 열렬하게 박수를 친다.
여기저기서 환호성도 들린다

전국 찬양



아나운서 두 사람도 울고 있다.
심사위원들도 서서 박수치며 울고 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시나리오

무명

그림

이휘찬

박가영 목장

세상의 안정을 넘어, 말씀이 주는

진짜 행복을 만났습니다

이민희 성도

정경석 관사도 목장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라는 곳에 소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찬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스무 살이 되고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저는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십여 년의 세월을 정처 없이 떠돌며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취업에 대한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성추행, 집안의 금전적인 문제 등도 있었고 제 스스로도 항상 뭔가 부족하고 갈망하며 허기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냥 공허했습니다. 타국에서 거주하던 당시 교회도 나가보고 거기서 많은 보살핌도 받았지만, 그때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또래 한국인들과 함께 교류하기 위한 수단 정도가 다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저를 이렇게나 사랑해 주는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에피소드의 시작

짧게 저희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 서로 첫사랑이었고 1년 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만에 돌고 돌아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인연입니다. 이후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오고 또 지금 사는 집에 정말 운 좋게 들어와 나라 지원을 받으며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이룬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영혼과의 만남

저희는 아이를 세 돌까지 가정에서 보육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특하게도 서하가 빨리 말이 텃고 예정보다 1년 빨리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우리 미정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타국까지 시집을 온 미정이는 이미 첫째가 있고 둘째가 저희 아이와 동갑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육아에서는 저보다 선배였지요. 심성이 따뜻했고 너무 예쁜 친구였습니다. 딱 1년 전 저는 지금 목장의 행복을 나누는 모임에 미정이의 초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었고 낯설기도 했었는데 아이까지 챙기느라 사실 기억도 제대로 나지가 않

습니다. 게임도 하고 즐거웠다는 느낌만 기억이 납니다. 한 아름 선물을 받아 들고 집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받기만 한 것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 번의 목장 방문으로 끊어질 것 같았던 교회와의 인연을 저희 목녀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부 연락도 해주시고 교회에 나와 보는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저희 부부는 서하를 교회 안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학생 때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만나 교제할 수 있었고 직접 경험해 봤기에, 교회라는 곳이 우리 아이가 자라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서하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서하를 위해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베이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본당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까지가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도 항상 즐기만 했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서하를 굳이 떼놓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며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목녀님이 저 대신 서하를 봐주시고 제

가 온전히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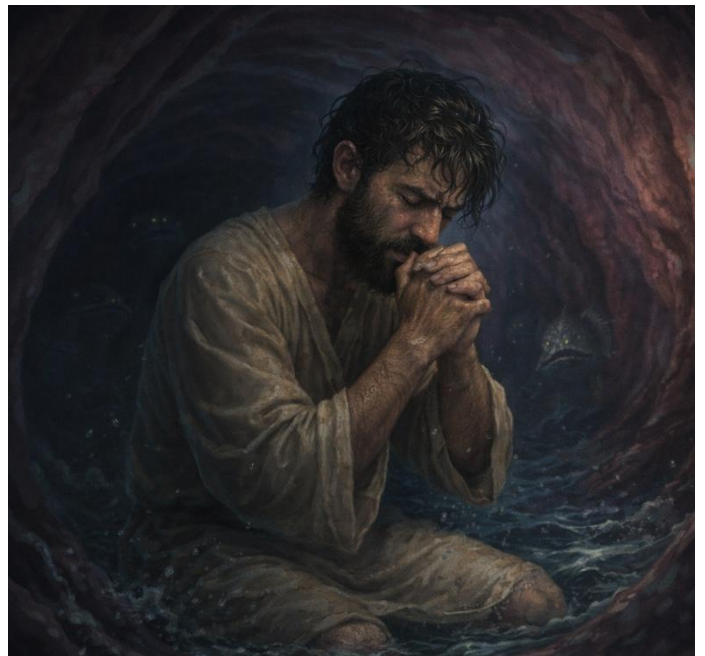
수면아래 은혜 학교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하셨던 ‘수면 아래 은혜 학교’ 요나의 말씀이 제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려 한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여 결국 육지에 다시 올려놓으신 그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만을 바라던 요나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았고, 지금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저를 이렇게 이끄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다른 어린이집이 아닌 저희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서하를 보내게 되고, 또 거기서 미정이를 만나 목장에 오게 된 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목녀님의 꾸준한 도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요나 말씀을 듣는 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너무 요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날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귀로 그리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느낀 첫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 사는 동안 저는 세상에서 겪는 일들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게 그냥 너무 분해서 참지도 못하고 잠 못 이루며 누군가와 부정적인 말들로 그 사람을 뒤에서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부터 뭔지 모를 평안이 마음에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일에도 크게 동요하며 격분하지 않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정을 이루고 느꼈던 그 최고의 행복은 제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하가 하나님 아버지를

땡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보니 이것이 진정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저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대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것이 삶을 망치는지 살리는지 한번 시도라도 해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에게 유익만 있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겠지요.

지금부터 제 목표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그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였을 때 성공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제가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뿌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최재윤 집사

박훈 목장

저는 밀레니엄 시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한없이 부드러운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인내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하지만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나뭇가지처럼 살았습니다. 새벽기도와 성경 읽기로 기쁨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되면서 목장 모임과 삶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하며 저의 신앙도 조금씩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매번 같은 얼굴, 반복되는 교제와 나눔이 어느새 형식적으로 느껴져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때 새로 오신 담임목사님께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셨고,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재를 정독

하며 뜻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고, 제가 머리로만 알던 말씀을 마음으로 채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잠시 위축되었던 목장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 신앙의 뿌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새로운 도전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힘이 아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작은 결단으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미지근했던 내 마음과 남편의 달힌 문을 활짝 열어준 시간!

윤말수 집사

매번 주보에 실리는 삶공부 안내를 보면서 “이번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안내면을 뜯어지게 쳐다보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그야말로 '선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도전이 필요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기 일쑤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삶공부 안내가 주보에 나왔을 때, 드디어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생명의 삶 공부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하며 같이 다녀보자고 권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24시간 붙어있는 같은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 남편을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교회로 오려면 시간이 제일 애매하다는 핑계를 대며 같이 가보자고 한 것입니다. 본인은 교회에 대해 말씀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괜챤냐고 묻는 남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삶은 교회의 가장 기초이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괜챤아요."

코로나 이후 교회 문 근처에도 안 가는 남편이었는데, 선뜻 같이 가서 등록도 안 하고 앉아서 듣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당장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전혀 상관없다고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부담 없이 그렇게 생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시작

남편에게도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주 가보고 안 간다고 하면 어찌나!' 걱정했는데, 남편은 생명의 삶을 듣고 그 주일에 교회를 가니 설교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이해가 된다고 오히려 더 좋아하며 나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예전엔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기초가 없는 상태라 주일에 말씀을 들어도 '그저 좋은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남편이 주일 예배 때 “기도했다”라고 고백해올 때는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또 목장 모임에 대해 궁금해 하고, 예수 영접 모임에도 관심이 가고... 삶공부 시간에 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교회에 대해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이야말로 작지만 큰 변화인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삶공부만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뜨거움이 식을 것입니다. 예전의 익숙한 나태한 생활이 다시 나를 붙잡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서로 권하고 위해주는, 작지만 아주 귀한 믿음이 이번 삶공부를 통해 우리 부부에게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의 삶공부 완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남편에겐 숙제도, 시험도, 간증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감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다시 세운 나의 정체성

조한나 성도

김재웅 라오스목장

저는 모태신앙이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이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제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제 삶에 항상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저와는 그렇게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분을 제 삶으로 초청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한참 후인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신입생 때 갔던 ESF 수양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이제 제 신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돌아본 신앙

그러나 그 후 결혼을 하고 10여 년의 미국 생활에서는 제 신앙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국을 한 후 울산시민교회를 알게 되어 등록을 하고 가정교회 삶 공부 시리즈의 처음 '생명의 삶'을 통해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2과로 구성된 생명의 삶은 그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었고 매과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제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과는 5과, 10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닮겠습니다

5과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 하늘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제가 특히 부족하고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난 것은 온유였습니다. 온유는 화를 더디 내는 것입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서 온유의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답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저에게 성내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10과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과연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권리, 권한을 받은 것이고 동시에 그 성품을 닮고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받아들인 경솔했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과 거룩을 지키고 있어야 하며 깨어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고린도전

서 6장 19절 말씀은 제 평생에 항상 기억하고 사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내 몸과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이전부터 제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고 그것을 계속 지키려 노력했기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꼭 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 정결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연합해야 하는데 연합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삶공부, 지식의 습득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며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삶 공부란 단순히 13주간의 강의를 듣거나 어떠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최태현 성도
우승엽 목장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 작년까지는 부산에 계신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울산에서 섬길 교회를 찾고 기도하던 중 아내의 지인 분께서 울산시민교회에 방문해 볼 것을 권하셨고, 제가 속한 목장의 목자 목녀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낯설었던 그곳, 시민교회

처음에는 가정교회의 개념이 낯설었고, 목자와 목녀라는 호칭도 참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 분과 교제하며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듣고 배우면서 저 또한 목장의 일원으로, 또 시민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며

3주간의 예영모 교육은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믿음의 성장단계 5가지에 대해 배우며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은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제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기도보다

는 저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제 힘만으로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항상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 불안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려는 마음, 즉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열쇠, 내려놓음

예영모 교육을 통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제가 경험한 사랑을 나누는 천국의 삶을 여기 계신 시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들’



정재욱 장로

‘휴스턴 서울교회’ 평신도세미나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 지난 11월 초원지기 부부 세미나에서 간증했었습니다. 목사님의 지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간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라고 하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간증을 준비하려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일단 밥맛이 없어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전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간증에서 목적인 것 외의 것들이 섞여 들어가지 않고, 책임질 말만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데, 목녀는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목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요’라고 합니다. 격려해 주려고 했겠지만, 저는 목장에서조차 좀 ‘허당’이거든요.

아무튼 어찌어찌 간증했었는데, 이번엔 또 시민누리애에 실자고 말씀하셔서 좋고 이지만 간단히 편집하여 올려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문어체와 구어체가 혼용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임 장로 부부를 중심으로 휴스턴 서울교회 평신도 세미나 참석이 결정되었을 때, ‘야~ 드디어 가는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휴스턴서울 교회는 제게 ‘엄친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더라~’ 처음 목자를 할 때부터 귀에 딱

지가 앉을 정도로 휴스턴, 휴스턴 했었고,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정말 존경스런 목사, 목녀님들이 오셔서 대단한 간증도 하시고, 전 세계에 가정교회를 전파하고 계시니, 진짜 도대체 가정교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가서 꼭~ 한번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직업도 아닌 어떤 일을 20년 가까이 한다는 건 인생에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20년간 매주 검도(劍道)를 했거나, 20년간 매주 서예(書藝)를 했다면 그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룰 수도 있는 기간인데, 목자를 19년이나 하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긴 휴스턴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는 게 스스로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업을 접고 통으로 2주일을 비워서 미국을 다녀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찝찝한 상태로 마음 한편에 풀지 못한 숙제처럼 19년간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추석 연휴가 연차를 끼워서 열흘 정도 길게 되었고, 또 당회 차원에서 단체로 가는 일정으로 추진된 덕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엄친아 휴스턴 서울교회’

마음 나누기 미국 평신도 세미나

를 19년 미뤄둔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휴스턴을 가기 전, 여느 평신도 세미나와 같이 가서 숙박할 목사님 내외분과 기도 제목을 정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사부 담당 장로로서 우리 교회가 배울 것을 알게 해 주소서’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게 덤덤히 은혜롭게 적어 보냈지만, 그 바닥에는 경쟁심? 질투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가정교회를 원칙대로 모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도 20년 가까이 가정교회를 했고, 헌신 된 목자, 목녀의 간증도 수두룩하고, 규모는 오히려 휴스턴보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뭐 그쪽이 원조라고 하시니 뭔가 좀 배워 보도록 합시다~”라는 ‘빠딱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연수 기간 내내 휴스턴 서울교회가 ‘그 유명한 휴스턴 서울교회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비판적 관점에서 열심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서른 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휴스턴 서울교회는 저의 빠딱한 마음 때문인지 제가 예상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휴스턴서울교회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1세기 종교개혁’이라고까지 말해지는 ‘가정교회’를 시작한 교회이고, 또 그걸 전 세계에 보급한 원조교회라는 생각 때문인지, 휴스턴 서울교회는 마치 군대와도 같이 잘 조직된 강력한 지도력과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춘 곳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도시 변두리에 위치해 있고, 교회 인테리어도 좀 후줄근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군데군데 실수가 많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방문하는 40여 명의 목자, 목녀들과의 면담이 예정된 휴스턴 서울교회의 목자, 목녀에게 가사부가 연락을 하지 않아서 하마터면 면담이 진행되지 못할 뻔하기도 했었고, 평세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 순서가 있었는데, 이수관 목사님께서 분위기 잡으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시는데 스크린에 가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급히 목사님께서 가사를 찾아 불러 주시는데, 타이밍도 맞지 않고 은혜가 안되어서(?) 하려는 결단

도 ‘잠시 미뤄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정말 많았지만,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기대했던 완벽한 팀워크, 세련된 진행, 강력한 지도력..... 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토요일 저녁, 그곳의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과 ‘말씀 요약’까지 빠짐없이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VIP가 있었고, 목자, 목녀의 헌신과 풍성한 음식이 있었고, 웃음과 기도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다만, 울산시민교회가 하는 것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의 뼈딱한 마음을 겸손하게 바로 세우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집회를 가든 목자, 목녀들의 간증이 가장 감동이었듯이,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의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절박하게 애쓰는 모습들은 듣는 내내 꾸밈없이 마음에 울려오는 울림으로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막 시작했었을 때 들었던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님들의 간증들이 정말 영웅과도 같은 열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전설 같은 섬김이었다면, 이번 평세의 간증은 소소한 현실 속에서 주어진 목자/목녀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려는 강한 의지와, 생활이 사역이 된 삶의 현장들을 적나라하게 나누면서, 수많은 갈등 중에서도 목자의 길을 선택하고 걸

어가고 있다는... 마치 우리 이웃의 이야기와 같은 소재가 많았습니다.

이민자로서 궁색한 생활을 하다가 연봉이 훨씬 높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기회를 어렵게 얻었는데 그러려면 목장을 관두고 다른 도시로 가야 해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목장을 선택했다는 목자님도 계셨고, 미국으로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사고로 죽고 자신도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도 대체 제게 왜 이러시냐!’고 따져 물으면서도 목자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아픔을 섬김과 나눔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목자님도 계셨고, 부모님이 목자, 목녀 이신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자신도 목자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젊은 싱글 목자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저의 좀 ‘뼈딱한 생각’으로는 30년 동안 가정교회를 했다면 왠지 타성에 젖고, 조금은 상투적인 모습, 교묘하게 세상과 타협한 모습이 간증 속에서 보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방금 돌아온 군인이 툭툭 자신의 옷가지들을 털면서 전우가 힘들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정비하고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덤덤하면서도 치열하게 들렸습니다.

평세 기간 내내 이런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휴스턴 서울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목장이 많다는 걸

마음 나누기 미국 평신도 세미나

알았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 교회를 떠난 목자도 있고, 세례를 받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버린 VIP도 있고, 이수관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부임하신 과도기에 VIP도 줄어서 크게 휘청였다고도 했습니다. ‘휴스턴이라고 모든 게 잘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처럼 불안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휴스턴의 교역자들과 목자, 목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무척 의연하게 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모두 그런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겼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며 덤덤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스턴 서울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고 가정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 사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것이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할 가치라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목자들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쓸데없이 목자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인테리어가 후줄근했구나~’

‘아~ 그래서 행사 진행이 투박했구나~’

‘아~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같은 행사를 1년에 서너 번씩 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났고, 저의 ‘삐딱한 마음’이 조금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삐딱한 마음’에 궁금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목자, 목녀를 이렇게도 당연하게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목자가 아닌 다른 길을 두고 의심이 생기거나 갈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매주 이수관 목사님의 설교가 엄청 좋아서 목자, 목녀들을 은혜 충만하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세 기간 자주 만났던 목녀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늘 교회에서 보고 하던 거라서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속 시원한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있을 텐데~’

김창훈 담임목사님 내외분과 함께 제일 앞자리를 사수하며 열심히 세미나에 참석하다 보니 어느덧 평세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가면 그곳 짝지가 된 목자님 댁에서 숙박하게 됩니다. 우리 부부는 이재동 부 목사님 댁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재동 목사님은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직을 포기한 분

이라고 이수관 목사님이 소개하신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 집회도 하셨던 낯익은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분은 휴스턴에 유학 와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휴스턴의 정유기업에 취직해 살면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목자가 되고, 안수집사(장로)가 되고, 얼마 전엔 목사 안수까지 받은... 말하자면 휴스턴 서울교회의 산증인 같은 분입니다.

이재동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 가득 모인 수백 명의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을 제게 인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뼈뼉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목자, 목녀를 이렇게도 당연하게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라고 생각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재동 목사님이 몇 분은 직접 인사시켜 주시고, 몇 분은 먼발치에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대부분 머리숱이 하얗고 살짝 허리가 굽은 70~80대의 노인분들이셨습니다.

“저분은 최영기 목사님과 같이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제가 존경하는 000 집사님이세요”

“저분은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000 목자님이시고 올해 실버목장으로 옮기셨어요”

“저분은 제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000 집사님이세요” ...

‘아... 이거구나!’ 여느 교회나 겪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휴스

턴 서울교회가 가정교회 정신으로 30년 이상 곳곳이 제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담당한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다하며 30여 년을 목자, 목녀로 섬기고 있는 ‘위대한 롤 모델’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30년이지 30년은 자기 의지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성인기의 대부분입니다. 인생의 숱한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 낸 ‘증인’들을 보유한 교회, 그리고 그들이 살아 낸 그 결과를 정답으로 알고, 그것이 당연하고 가장 치열하게 지켜내야 할 가치라고 믿으면서 새로운 ‘증인’ 되기를 자처하는 목자, 목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 서울교회는 휴스턴 서울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교회 조직을 생각하며 강력한 시스템을 배우러 갔었는데, 거기서 본 것은 오랜 기간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낸 강력한 ‘문화적 유대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휴스턴 서울교회와 함께 했고, 그 30년 역사 속에서 기도 응답과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3세대(3 Generations)의 목자, 목녀들이 ‘가정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함으로써 형성된 강력한 ‘문화적 유대감’이 목자, 목녀의 삶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그저 목자인 삶’을 멋지게 살아 내신 분들과 인사를 하고 나니 뼈뼉한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존경심 가득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 나누기 미국 평신도 세미나

이재동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무슨 내용인지 대화의 주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물 위를 걸어 본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목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인 것 같은데, ‘물 위를 걸어본 자들이 함께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얘기 중이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아마도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폭풍 중에 주님의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어간 사건을 관용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대화의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물 위를 걸어 본 자들’이란 표현이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본 자들... 가정교회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음으로써 목장에서 기적을 체험한 목자/목녀들은 ‘물 위를 걸어본 자들’입니다. 한 명 두 명 정도가 아니라 그런 ‘물 위를 걸어본 자들’이 30년 휴스턴 서울교회의 역사에 숭하게 있고, 20년 울산시민교회의 역사에도 숭하게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물 위를 걸으셨던 분들 아니신가요?

평세가 끝나고 달빛 밝은 고속도로를 달려 대형 펜션으로 거처를 옮긴 뒤, 연수팀 전체 10명이 잠옷 차림과 맨발로 주방의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담임목사님 내외분과 장로 부부 8명이었습니다. 원래 당회 구성원끼리 사이좋은 교회가 별로 없다고들 하는데, 두런두런 간식을 먹으며 평세 소감을 나누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목장 식구끼리 삶을 나누는 느낌이었고, 성령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는데, 최근 정년퇴직하신 구기성 장로님께서 큰 목소리로 얘기하셨습니다. “정년하고 뭐합니까. 죽으라~고 해 볼랍니다.” 이 말씀이 이번 연수팀과 제 생각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참 힘이 들었지만, 다시 휴스턴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목사님, 사모님, 목자/목녀들을 생각하니 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20년 전 목자 임명식에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던 저를 생각하면 정말 내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목장과 초원을 지키며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목장과 초원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마음 나누기 미국 평신도 세미나

삼기'라는 단순한 사명을 당연하게 믿고 내 자리를 지키면, 목장과 초원의 성장은 거기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연수를 마치며 목장과 초원에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스턴 목자님 간증 중에 사역의 '꿀팁'이라며 소개받은 건데, '일주일에 나흘 이상 20분 이상씩 기도한다. 일주일에 나흘 이상 성경을 3장 이상씩 읽는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자 서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늘 그렇듯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빠른 지름길은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국 후에 '목자 서약서'를 꺼내 연구실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파격적 기도'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김종진집사는 VIP가 목장에 왔을 때, 그분이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VIP의 수입이 형편없이 낮다면 "VIP의 연봉이 2.5배가 되도록 해 주세요."하고 수치까지 정하고

공개적으로 알리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이 감기 낮게 해 주세요. 가정형편이 좋아지게 해 주세요... 처럼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인지, 기도 응답으로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기도는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되면 어떡해요? 라고 누군가 질문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VIP는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목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목자가 기도하지 않아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명쾌했습니다. 목자의 능력은 거두절미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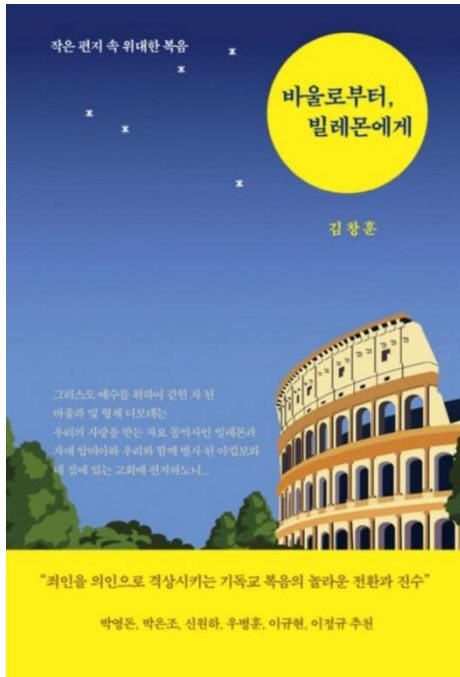
결국, 물 위를 걷는 경험은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결과는 내가 고민할 몫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목자라는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며 기도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 울산 무거동의 노을이 휴스턴에서 본 노을 못지않게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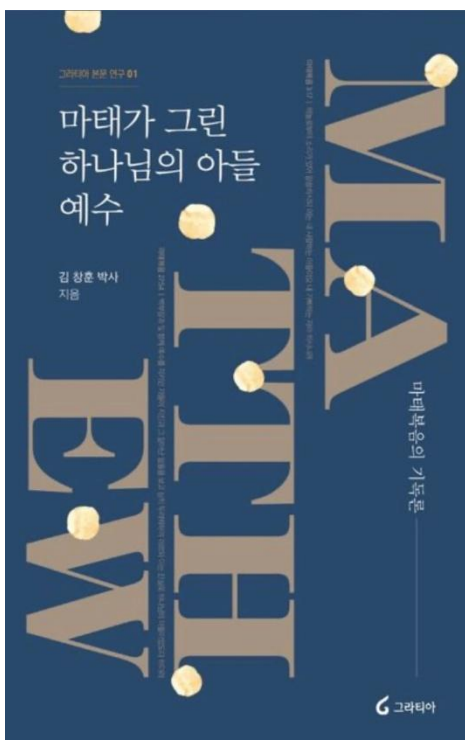
시민 책방

《바울로부터, 빌레몬에게》 김창훈, 좋은씨앗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서신서인 빌레몬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작품입니다. 김창훈 목사는 바울의 개인적 편지 속에 담긴 화해와 용서, 그리고 복음의 혁명성을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노예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태도는 단순한 권면을 넘어, 복음이 인간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는 교회의 정체성과 공동체 윤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편지 속에서 위대한 복음을 발견하게 하는 깊이 있는 신학적 안내서입니다.

《마태가 그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김창훈, 그라티아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치밀하게 탐구한 기독교론 연구서입니다. 저자는 마태가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려내고 있는지를 본문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구약과의 연결, 왕으로서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며 마태복음의 신학적 구조가 드러납니다. 학문적 깊이를 지니면서도 목회적 통찰을 함께 담고 있어 신학생과 평신도 모두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단단한 기초를 마련해주는 작품입니다.

표지 그림 소개



“

찬양의 소리에
봄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

표지그림
전수진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강현수 목사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가족을 소개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부와 두 아들, 이렇게 4인 가족입니다. 아내 박세희 사모와 함께 6살 강요엘, 4살 강나엘을 키우며 매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엘이는 호기심 많고 종종 길에서도 이웃에게 인사를 나눌 정도로 쾌활한 성격이며,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잘 챙기는 든든한 형입니다. 나엘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로, 날마다 형을 졸졸 따라다니며 웃음을 주는 우리 집 비타민입니다.

아내는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현명한 동역자입니다. 두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와 아내는 출생지가 부산 금정구 구서동으로 같습니다. 대학도 같은 고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로 제 나이 27살 봄에 처음 알게 되어 교제하고 이듬해인 28살 겨울에 혼신 서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의 헌신자가 되고자 하는 비전이 같고, 평소 마음이 잘 맞아서 늘 좋은 부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며,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환영 코너

저는 시민 교회에서 킹즈베이비 영아부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리고 순수한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성스럽게 키우며 교회로 보내주실 모든 성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아이들을 친자녀처럼 돌보며 섬기시는 교육 목사님들, 스태프 선생님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거란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원지기로서 4평원을 담당하고, 방송 사역부, 지역 섬김 사역부, 복지 사역부, 홈페이지 관리 등 이전 교회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며 교회의 숲을 보는 힘, 협력하는 사역의 훈련이 되는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4년 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고 햇수로 3년 차, 만으로는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울산시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배 목사님들께 배우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조금씩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새로 이사 온 사택과 교회 모두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갈 생각에 설렘과 감사함이 피어오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윤현락 목사



안녕하세요. 울산시민교회에 새로 부임한 윤현락 목사입니다. 본 소식지에서는 가족 소개를 Q&A 형식으로 담아보았습니다.

Q. 우리 가족 구성은?

A. 저희 가족은 남편이자 아빠인 윤현락, 아내이자 엄마인 김은혜, 올 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 윤소원,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Q. 울산 생활은 어떤가요?

- 현락: 울산에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울산은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져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다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올해에만 벌써 세 번이나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동네 가까이에 태화강이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아침과 저녁이면 하늘을 가득 채우는 떼까마귀의 군무가 펼쳐지는데, 그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이동이 수월해 어디를 가든 크게 차가 막히지 않는 점 역시 울산 생활의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 은혜: 동네에 5일장이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장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금 준비는 필수죠. 따끈한 호떡도 사먹고, 이곳 저곳 비교하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장롱 먼허인 제가 울산에서는 운전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초보운전 딱지를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 소원: 교회 가는 날이 가장 재미있어요! 영어예배도, 예뎁키즈 예배도 너무 재미

환영 코너

있고, 점심을 먹고 난 후 시민 놀이터에서 계속 계속 놀고 싶어요. 새로운 유치원 생활도 즐거운데 얼마 못 다니고 학교에 입학해야 해서 아쉬워요.

Q. 각자 성격이 궁금해요!

- **현락:**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즐기며, 익숙함 보다는 도전을 통해 배우는 편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을 좋아합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고, 생각이 정리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다만 때로는 속도가 앞서 조심해야 할 때도 있어, 요즘은 한 걸음 멈춰 듣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 **은혜:**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좋아해요. 평소에 말이 많지 않고,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좀 느립니다. 느릿느릿...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적고 보니 남편과 거의 반대 성격이네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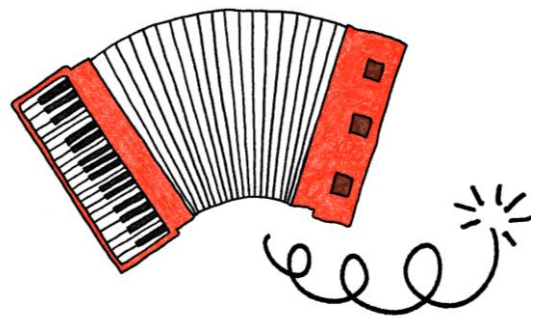
- **소원:** 사회성이 좋아요. 평소에 친구들을 정말 좋아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모험과 도전을 좋아해요!

Q.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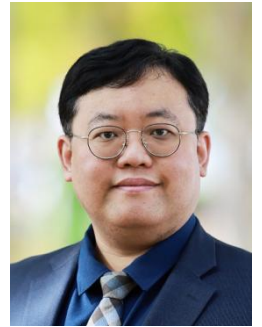
- **현락:** 운동과 여행을 좋아합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쉬는 날에 아내와 함께 카페에 나가 조용히 책 읽거나, 영화보는 것도 저의 즐거움입니다.

- **은혜:** 저는 산책, 맛집 탐방, 여행을 좋아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책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리에 재미가 붙어서 레시피를 보고 요리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어 주면 행복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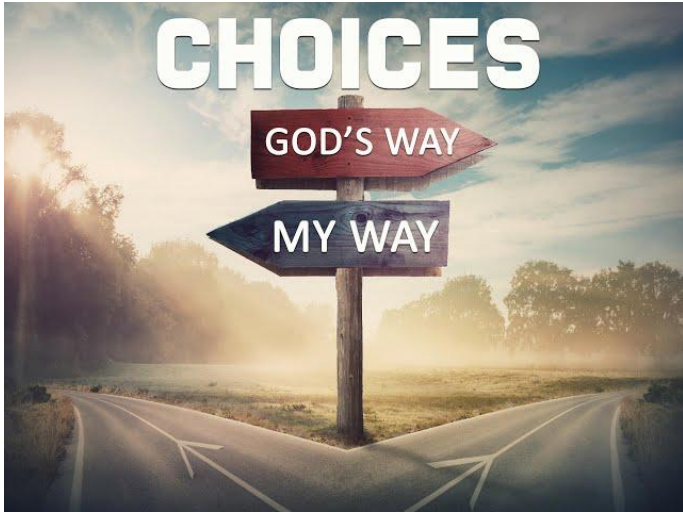
- **소원:** 그림 그리기, 만화책보기, 인형놀이, TV 보기, 놀이터에서 놀기를 좋아해요. 노는 것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



하나님의 뜻, 내 뜻



강성민 목사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내 뜻대로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쩌나, 내 인생이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미리 정해진 정답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면 그 정답이 드러나고, 그 길을 고르면 안전하며, 다른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주로 ‘선택의 목록’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이라”(살전 4:3)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정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내비게이션처럼 오해합니다. 정확한 안내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경로를 벗어나면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느낍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1권 17장,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추측하거나, 미래를 통제하려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답으로 맞추고 싶어 하는 깊은 속내는 바로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었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내 선택이라면, 실패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확실성과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실성을 보장받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미리 아는 능력이 아니라,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신학아티클

성경은 우리의 선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인간이 계획하고 결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잘 될지’ 걱정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고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와 결과를 모른 채 길을 떠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여러 번 막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 채 걸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 속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택 이전에 모두 설명되기보다, 선택 이후에 해석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선택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무효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충분히 고민하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책임 있게 선택하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택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

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에서 “이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을까?”로, “이 길이 안전할까?”에서 “이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한 세계와 위대한 세계

- 성경과 영화 아바타가 묻는 세계관 대화 -

윤현락 목사



1. 우리는 모두 ‘어떤 세계’를 믿으며 산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성격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속해 있다고 믿는 세계의 방식대로 삽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당연한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이 그 세계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를 믿고 사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술은 이런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음악가는 소리로, 작가는 문장으로 자신이 보고 믿는 세계를 드러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문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학은 타인과 자신을 연결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소통하게 하는 힘이며,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연결의 행위이다"

이 말은 문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진정한 예술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세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세계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아바타는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어떤 세계가 인간을 살리는가?”

2. 아바타가 보여주는 두 개의 세계



아바타는 2150년대, 지구가 아닌 ‘판도라’라는 행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구는 이미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고, 인간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귀 광물 ‘언옵테늄’을 얻기 위해 판도라로 옵니다. 그곳에는 자연과 깊이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 나비족이 살고 있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두 개의 세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인간의 세계는 빠앗고, 정복하고, 효율과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나비족의 세계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와 조화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처음부터 판도라를 공격하려 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비족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 인간 DNA와 나비족 DNA를 결합한 육체, 즉 ‘아바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바

타에 자신의 의식을 연결해 판도라에서 활동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곤한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몸을 바꾼다고 이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는 세계관이 바뀔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주인공 제이크 설리는 나비족의 삶을 경험하면서 변합니다. 이 변화는 종족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가 믿고 따르던 세계가 바뀌자 선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아바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어떤 세계를 믿느냐이다"

3. 성경이 말하는 '다르게 사는 세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강해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르게 살아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 4:6, 새 번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

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민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위대한 세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신명기 4:6에서 말하는 '위대한 백성'은 군사력이나 영토, 경제 규모가 아닙니다. 주변 민족들이 보며 놀랄 만한 지혜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율법이 주어진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4. 율법이 그려내는 세계의 모습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 주신 그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율법을 자세히 읽어 보면, 그 세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신명기에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요청이 반복해서 나옵니다(신 15:4, 11). 여기서 약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실패를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고, 구조적인 가난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정하는 사회를 상상합니다. 이 건 낭만적인 이상이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식탁에는 차별이 없었고, 그분의 시선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사람을 서열로 나누지 않고, 관계로 묶습니다.

5. 강한 세계와 위대한 세계의 갈림길



영화 속 퀴리치 대령은 강한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세계는 단순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명령은 수행되어야 하며, 목표를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에게도 균열이 생기는 순간을 보여 줍니다. 그는 나비족의 삶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힘 있는 자리를 포기했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제이크 설리를 보게 됩니다. 설리는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오히려 더 살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퀴리치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믿어 온 기준이 정말 전부일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해야 하고, 이겨야 하며, 손해 보면 안 된다고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덜 가진 것 같은데 더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낯섦이 어찌면 믿음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행 11:26).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쟁보다 사랑을, 효율보다 돌봄을, 이김보다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자신들이 믿어 온 세계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가진 힘입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7. 함께 살기 위해 위험을 선택하다.



인간은 판도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얻기 위해, 스파이더를 연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에게서 판도라를 정복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더의 아버지인 퀴리치 대령 역시 같은 세계의 논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파이더를 ‘지켜야 할 아이’가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열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스파이더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스파이더가 있는 한, 설리 가족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리는 그를 포기하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기 위해 버리는 길 대신, 함께 살기 위해 위험을 선택

택합니다. 이 선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은 이 선택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면 모든 것을 쉽게 끝낼 수 있었지만, 버리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8. 위대한 세계를 향하여

신명기 4장이 말하는 ‘위대한 백성’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공동체, 정의로운 삶의 방식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만이 우리를 살아 있게 만듭니다. 위대한 세계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키고, 나누고, 함께 살겠다는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김성현 성도
김동욱 목장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6)

안녕하세요, 2부 앙상블을 섬기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성현입니다. 저는 2023년부터 시민교회 2부 성가대 앙상블에서 섬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플루트는 제게 단순한 악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의 달란트이자 고백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과 감정을 호흡에 실어 소리로 표현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는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저는 연주를 할 때 늘 진지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음악은 연주자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가

곡을 연주할 때도 단순히 ‘잘 연주하는 것’에 머무르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가 성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만듭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제 연주 역시 예배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 연주는 무대 위의 공연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박수와 평가의 목적이 아닌, 예배의 흐름 안에서 음악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루트 소리가 찬양과 말씀을 앞서기보다, 조용히 받쳐주는 역할이 되길 원합니다.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이 찬양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일은 늘 조심스럽고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연주 전에는 호흡의 깊이와 방향, 프레이즈의 흐름, 다이내믹의 크기를 세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제스처나 표정, 호흡의 타이밍까지도 예배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기에, 몸 전체를 하나의 악기로 인식하며 연주합니다. 호흡으로 소리를 만드는 연주자로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제 연주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민교회 2부 성가대에서의 연주를 통

해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음악은 기술 이전에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서 있는지가 소리에 고스란히 담긴다고 믿으며 그래서 찬양곡을 연주할 때마다 저는 연주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예배자로서 있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플루트로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들은 저에게 음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소리는 곧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드린 예배의 순간은 연주자와 듣는 이의 마음을 남게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성실히 사용하며, 제 플루트의 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리는 두 제자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다!

이완승 목자



이번 호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한 점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라디오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옛 노랫소리에 하던 일도 멈추고 추억에 잠겨본 일이 있으시죠? 이 그림은 저에게 바로 그런 옛 노래와 같은 그림입니다. 30대 초반의 저는 책(나의 서양미술 순례/서경식)을 통해 이 그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술사에서 흔히 거론되는 명화의 반열에 있는 작품도 아니고 내용도 평범해서 종교화의 숭고함과는 더더욱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조그마한 문고판에 흑백 도판, 시각적 효과마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을 보는 순간 꽂혀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그림은 비닐 코팅이 된 채 여전히 나의 책상머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위스 국적의 사실주의 화가 '외젠 뷔르낭(Eugène Burnand)'의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1898)이라는 작품입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이 비워졌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디에도 부활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단지 복잡한 심리를 가득 머금은 채 어딘가로 황급히 뛰어가 는 두 남자만이 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펼쳐진 궁창과도 같은 빈 공간은 그림을 더

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제목을 먼저 보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알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림에 표현된 두 성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 반하여 이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갈등과 고뇌의 존재, 불안과 두려움은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나도 그들과 함께 서서 나란히 뛰어가는 상상을 하게 되었으며 힘들고 지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그림을 바라봅니다. 책의 내용이 변하지 않듯 그림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림을 바라보는 내가 변할 것뿐이지요. 과거 불안한 자아를 보상받듯 이 그림에서 나를 만났다면, 지금은 신앙의 관점에서 그림을 보는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젊은 요한은 일말의 기대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무덤에 도착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요한의 모습은 이해보다 신뢰가 앞서서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 거친 손과 썩은 눈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스승을 부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아마 그에게 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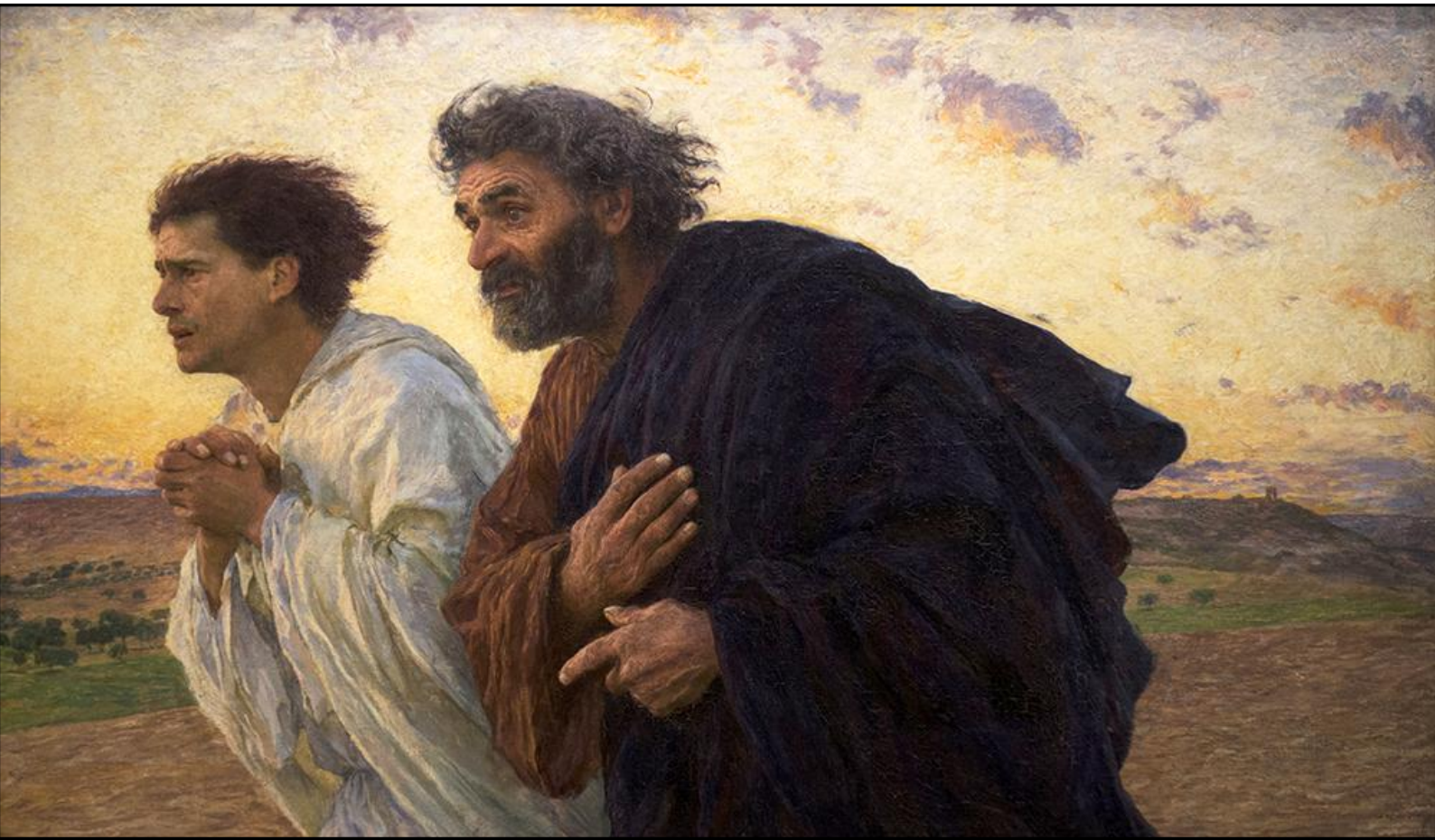
쁨인 동시에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실패와 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베드로는 달립니다. 도망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죄책감을 안은 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모습에서 저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를 바라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나의 신앙은 요한처럼 확신에 차 있지도 않고, 베드로처럼 깊은 회개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주님을 향해 걸어온 것 같습니다. 믿고 싶어 달리지만 의심이 남아 있고, 은혜를 알긴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서서 모습이 바로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완전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과 기대, 죄책감과 소망이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달리는 두 제자 사이에서, 연약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

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은 확신에 찬 요한도, 실패한 베드로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나 역시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만나는 것도, 한 점의 그림을 만나는 것도 다 귀한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법으로 다시 옮기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겠지요. 한 점의 그림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젠 뷔르낭(Eugène Burnand, 1850-1921)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
Les disciples Jean et Pierre accourant au
sépulcre le matin de la résurrection> 1898
캔버스에 유채 83×135 cm
오르세 미술관/프랑스

뜨거워진

지구를 구하라



권영국 집사
송태성 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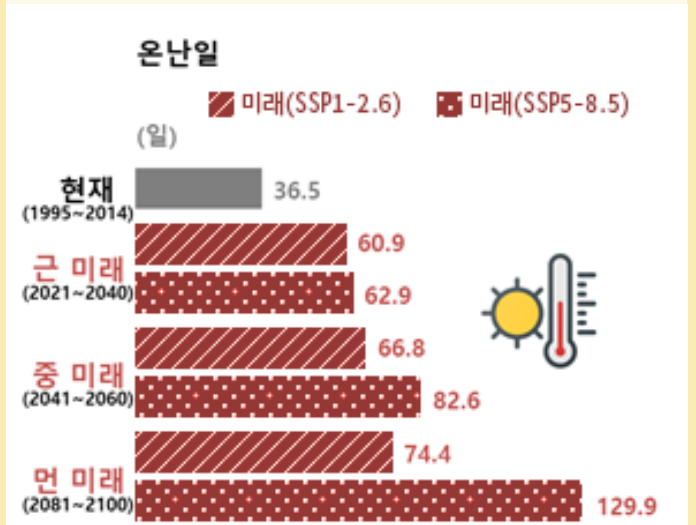
이산화탄소(CO₂)는 생명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분자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배출한 CO₂는 식물로 들어가고, 식물은 이를 이용해 햇빛의 에너지를 저장하며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산소를 마시고, 그 유기물을 먹으며 살아가죠. CO₂는 이렇게 생명과 생명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중요한 분자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생성 깃스 자유에너지(ΔG°)가 약 -394 kJ mol^{-1} 로 매우 낮다는 것은, CO₂가 자연 상태에서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쉽게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 안정성 덕분에 CO₂는 오랜 세월 동안 탄소 순환의 중심에서 생명의 흐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균형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대기 중 CO₂농도는 현재 약 420 ppm에 이르렀고, 이는 산업화 이전 약 280 ppm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늘어난 CO₂는 약 15 μm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대기 중에 붙잡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평

균 기온이 상승하고, 이상 기후와 생태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1은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온난일의 변화 추이를 보여 주며, 기후 변화가 지역 기온 현상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CO₂는 한때 생명의 순환을 돕던 분자를 넘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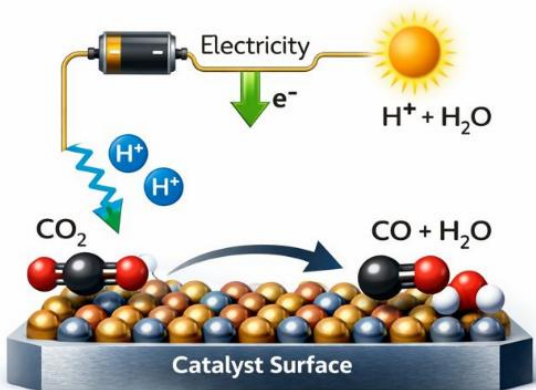
[그림 1] 한반도 온난일 변화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그렇다면 이 흐름을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자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공급되면 물질의 상태가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깃스 자유에너지(G)와 전기 에너지(E)의 관계입니다. 전기화학에서는 이 관계를 이러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Delta G^\circ = -nFE$

여기서 ΔG 는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즉 변화의 방향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n 은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전자의 수를 뜻하고, F 는 패러데이 상수로 전자 한 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을 뜻합니다. 이 식은 결국 전자의 이동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화학 반응도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CO_2 역시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CO_2 는 전자를 하나 받아 반응을 시작하게 되지만, 분자 구조가 안정해 전자가 쉽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중간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금(Au), 은(Ag), 구리(Cu) 같은 금속이 바로 그 역할을 하며, 이처럼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부릅니다.



[그림 2] 전기화학적 CO_2 전환 촉매반응

그림 2는 전기 에너지가 공급될 때 금속 촉매 표면에서 전자(e^-)와 수소 이온(H^+)

이 CO_2 로 전달되어, 안정한 CO_2 가 다른 탄소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 과정에서 촉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전자와 수소 이온의 이동을 도와 반응의 문턱을 낮춥니다. 그 결과 CO_2 를 일산화탄소, 개미산, 탄화수소, 알코올 등의 유용한 탄소 화합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촉매의 성능이 좋을수록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CO_2 를 전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은 다시 연료나 화학 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CO_2 전환 기술은 탄소를 다시 생명의 순환 속으로 되돌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의 공급과 촉매의 작용을 통해 안정한 물질도 다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회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원리와 과정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학적 회복의 모습은 신앙이 말하는 회복의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어떤 변화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듯,

우리의 회복에도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또한 촉매가 반응 전과 후에도 변하지 않은 채 그 역할을 계속하듯, 예수님 역시 십자가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뜻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과학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도 어쩌면 그 창조성을 닮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뜨거워진 지구 앞에서, 과학과 신앙이 함께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유니스트 에너지과학부



소리 없이 치아를 파괴하는 '치아 균열 증후군'

이상수 집사
진성덕 목장



치아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소모성 조직'입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씹으며 치아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 압력이 30년 이상 쌓여 치아 표면에 미세한 금이 가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치아 균열 증후군(Crack Tooth Syndrome)'이라 합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과 달리 육안이나 엑스레이로도 잘 발견되지 않아, 증상으로만 진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씹을 때보다 '떨 때' 더 아프다면 의심하세요

치아 균열 증후군만의 독특한 특징은 통증의 양상입니다.

- **잇몸 질환:** 씹을 때 묵직하고 둔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 **치아 균열:** 음식을 씹었다가 '떨 때'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반복되면 치아 신경이 흥분상태가 돼서, 차거나 뜨거운 음식이 닿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2. 왜 치아에 금이 갈까요?

수십 년간 축적된 '치아 피로 누적'이 원인입니다.

- **한국인의 식습관:** 오돌뼈, 누룽지, 말

린 오징어처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는 문화는 치아에 치명적인 수직 압력을 가합니다.

- **구강 내 악습관:** 수면 중 이갈이나 무의식적으로 이를 꼭 깨무는 습관은 평소의 몇 배에 달하는 과도한 힘을 치아에 전달합니다.
- **노후된 수복물:** 과거 아말감이나 금으로 크게 때운 부위는 시간이 흐르며 치아 사이에 틈을 만들거나, 췌기처럼 작용해 치아를 쪼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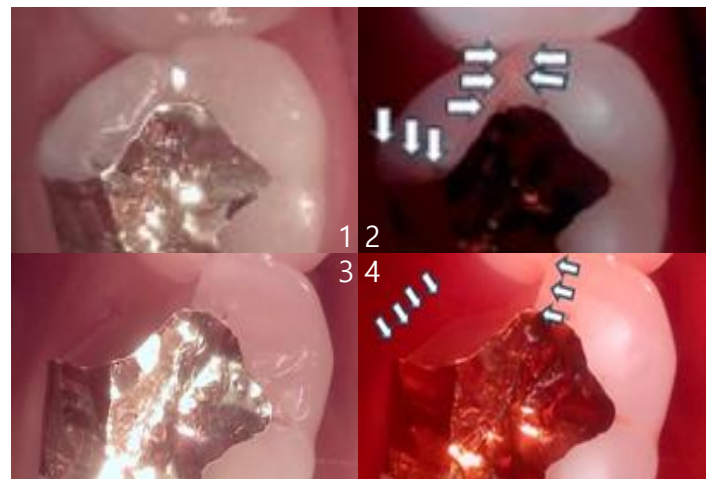


그림 1) 골드 인레이 + 오랜 저작으로 인한 균열/파절

1: 40대 여성으로, 오래전 골드 인레이 주변치료를 받았습니다. 균열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1번 사진에 형광필터를 입혀서 균열선을 진단하였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치료 없이,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3,4: 한달만에 파절되어 내원

문화 광장 건강 토크

특히, 씹을 때 제일 끝 어금니가 힘을 제일 많이 받는데, 예전에 골드 인레이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다면 치아 균열로 인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방치하면 결국 '발치'

치아 균열은 자동차 유리에 간 금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아 보여도 결국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1. 초기 (미세 균열): 겉면(법랑질)에만 금이 간 상태로 찬물에 약간 민감할 뿐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2. 중기 (상아질 침범): 균열이 내부까지 깊어져 본격적인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치아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전체를 감싸는 '크라운 치료'가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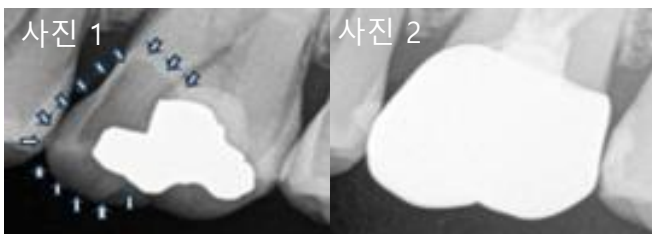


그림 2) 균열로 인한 파절 치료

사진 1: "그림1"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파절이 확인됩니다.

사진 2: 신경치료(=근관치료)와 크라운 수복으로 회복하였습니다.

3. 말기 (뿌리 파절): 균열이 신경을 넘어 뿌리까지 수직으로 내려가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결국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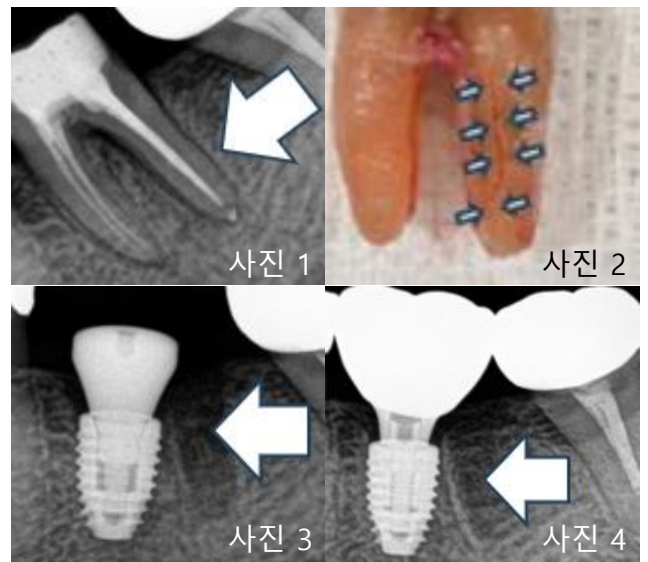


그림 3) 뿌리까지 수직 파절되어 발치하고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 수복.

사진 1: 뒤쪽 뿌리에서 치아균열 소견으로 발치 결정

사진 2: 발치 후 치아 수직균열(파절) 확인함

사진 3: 발치 동시 임플란트 식립

사진 4: 보철 수복

4. 소중한 내 치아를 지키는 예방 수칙

- 부드럽게 먹기: 질긴 음식은 작게 잘라 먹고, 얼음이나 견과류를 어금니로 세게 깨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 나이트 가드 활용: 이갈이가 있다면 치과 전용 마우스피스를 제작해 치아 압력을 분산시켜 주세요.
- 양쪽으로 씹기: 한쪽에서만 씹는 습관(편측 저작)은 특정 치아의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은 치아 건강에 딱 맞는 비유입니다.

불규칙한 통증은 치아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깐 이리다 말겠지'라는 생각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소중한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 내시기 바랍니다.

-리더스 치과의원-



하나님의 마음 알기



박현욱 목사

작년에 한 목녀님께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을 선물받았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조금 읽고 미루다 여유로운 주말 아침, 단숨에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하고자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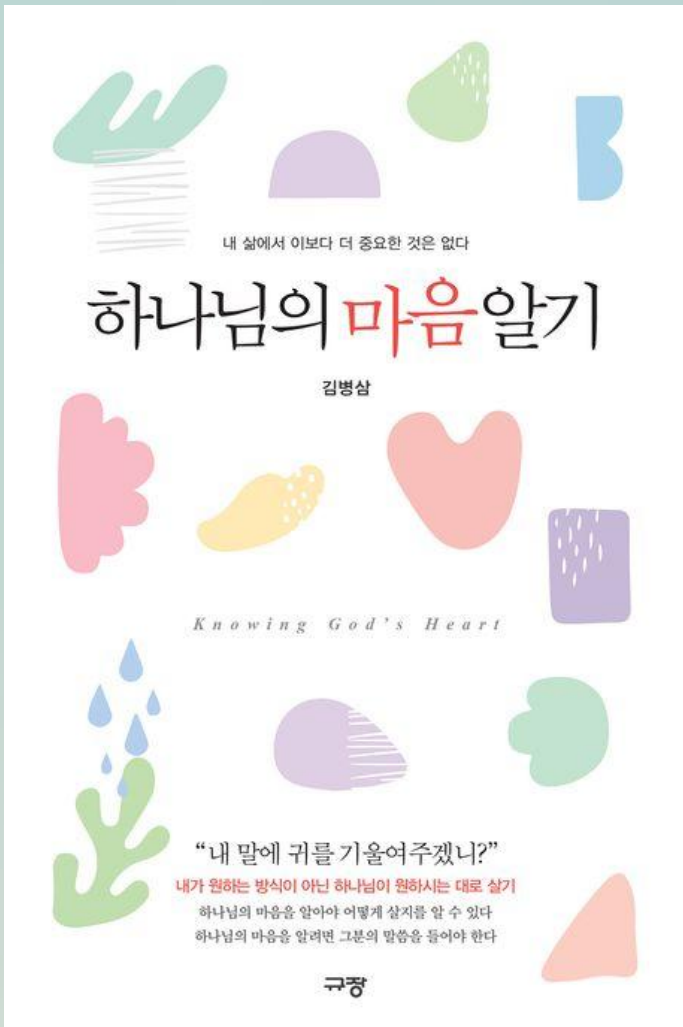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신앙생활과 사역의 출발점이자 결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의도로 섬기지만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은 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신앙이 방향을 잃기 쉽다고 경계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 봉사, 헌신, 사역, 훈련 등 수많은 신앙 행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은 채 이루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어긋난 신앙, 헌신은 많지만 사랑이 빠진 사역, 옳아 보이지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며, 특히 사람을 향한 사랑, 긍휼, 회복의 의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살리려 하고 성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규칙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으며 가정교회 목장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며,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상처 입은 자에게 다가가며, 율법보다 사랑을 우선하셨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왔을지도 모릅니다. 옳음에 집착하다가 사람을 놓치고, 열심을 강조하다가 관계를 잃어버리는 모습 속에서 말이지요. 이 책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멈춰 세우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니?"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니?"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짐을 나누고, 연약함을 감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자는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견뎌주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방식, 말을 하는 태도, 갈

등을 대하는 자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묻지만, 저자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를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기준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게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를 먼저 묻는 삶이 필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속도를 잠시 늦추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청년 축구팀을 소개합니다!



김예찬 싱글목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찬 목장의 김예찬입니다. 싱글 축구팀을 소개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스무 살 청년부터 30대 신혼부부 형님들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축구팀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는 형님들이 20대 초반이던 시절에 축구를 함께 했습니다. 금요철야기도회를 갔다가, 토요일 아침이면 매주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팀을 다시 만들 때도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싱글 내에서 축구로 교체하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라는 게 같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을 축구 공지 스타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울시교축구팀 〉

시간 : 토요일 7~9시

장소 : 주장 단이 섭외한 울산 내 축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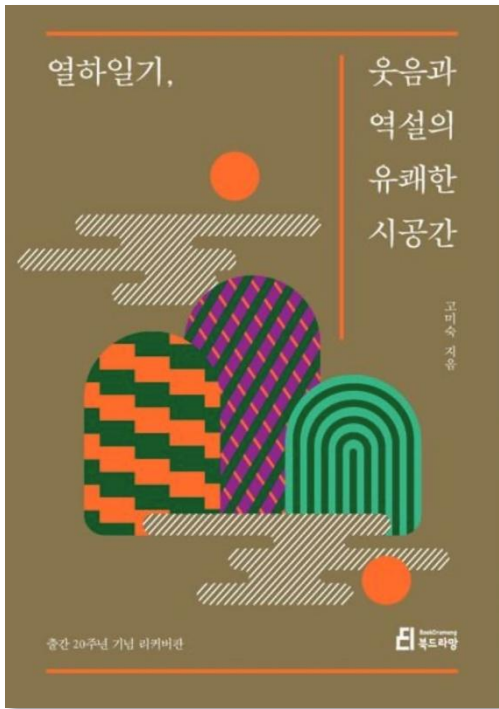
대상 : 싱글지체 누구나, 축구를 통해 전도가 필요한 VIP



이상 '울시교축구팀'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봄 독서 여행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고미숙, 북드라망



고미숙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단순한 고전이 아닌, 오늘을 새롭게 사유하게 하는 살아있는 텍스트로 읽어냅니다. 조선의 사신이었던 박지원이 마주한 청나라 문명은 여행기가 아니라, 굳어진 세계관을 흔드는 통쾌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그 속의 ‘웃음’과 ‘역설’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질서를 낯설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책은 고전을 읽는 일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현재를 재해석하는 지적 모험임을 보여줍니다. 봄날처럼 가볍지만 날카로운 사유가 필요한 독자에게 권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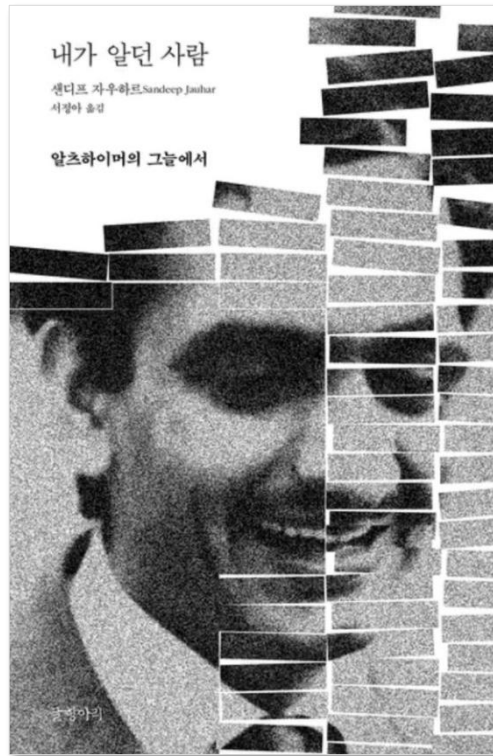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아마르티아 센, 21세기북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불평등을 단순한 소득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기회의 불균형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사회적 선택과 제도의 구조를 분석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을 질문합니다.

이 책은 통계와 이론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능성을 중심에 둔 사유입니다. 불평등이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선택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냉정한 분석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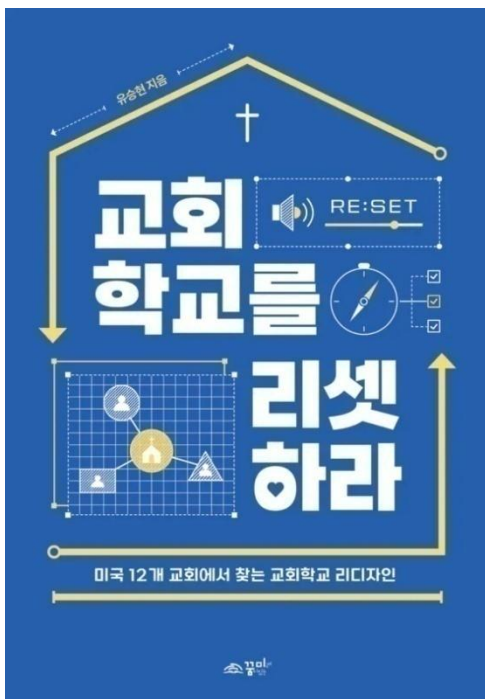
《내가 알던 사람》 샌디프 자우하르, 글항아리



의사이자 작가인 샌디프 자우하르는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곁에서,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기록을 남깁니다. 병이 한 사람의 기억을 지워갈 때, 우리는 여전히 그를 같은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던집니다.

이 책은 치매라는 의학적 현실을 넘어, 인간 존재의 연속성과 관계의 본질을 사유하게 합니다. 사랑이 기억을 넘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깊은 에세이입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 유승현, 꿈미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근본적으로 묻는 책입니다. 저자는 단순한 프로그램 개선이 아니라 신앙 교육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직시하며 공동체적 신앙 형성의 새로운 길을 제안합니다. ‘리셋’은 포기가 아니라 재정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천적 통찰을 제공하는 안내서입니다.

교육부서 수료 / 어노인팅 찬양 집회



다음세대, VIP 초청
어노인팅 찬양집회

12월 6일(토) 오후 5시
본관 3층 대예배실



성탄 발표회 / 송구영신 예배



목자 서약식 / 삼공부 수료식



온하성 / 비전틴 단기선교



신학교육의 효과적인 복음전파



김역수 선교사 가정

레소토라는 나라는 남부 아프리카에 작은 산악 국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영역에 남아공의 영향을 받습니다. 크기는 경상도 크기만 하고, 인구는 230만인데 30-50만이 남아공에 나가서 일하는 실정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 선교사는 저희 가정이 유일합니다. 다른 한국인은 구원파 이단 사람들 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소외된 나라이지만 레소토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높습니

다. 이곳에서 저희 가족은 살아가며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장성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역수, 김병일, 조애(캘거리 대학 1), 조이(한동 고등 3)입니다. 2011년 6월부터 한국인 유일한 거주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레소토에서 초등, 중학과정을 마쳤고, 코로나 끝 무렵에 한국으로 이동하여 포항에 위치한 한동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김역수 선교사는 목사 선교사로서 신학교육을 통한 제자 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중심은 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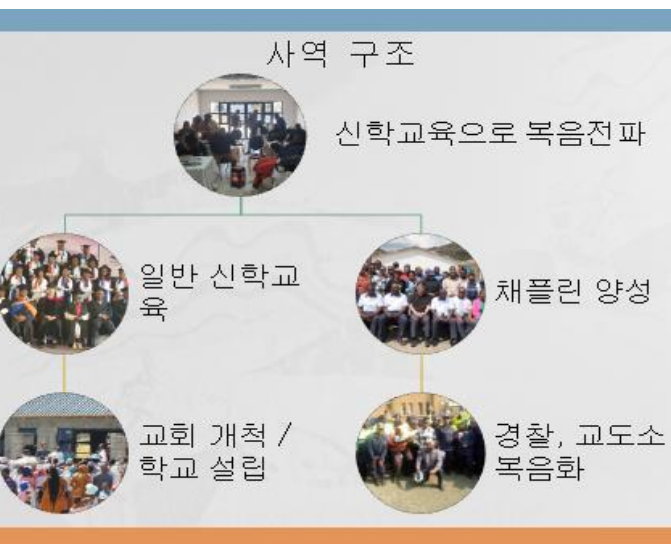
열방을 향하여

육이고, 일반 목회자 교육과 기관 목회자(채플린) 교육을 진행하여서 목회자는 교회 설립과 기독교 교육기관 설립으로 복음 전파를 진행합니다. 채플린은 기관의 복음화와 지역 사회 영향을 넓혀 갑니다.

1. 일반 신학 교육과 사역

a. **교육내용** - 레소토 지도자들은 95% 이상이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는 African Leadership 소속으로 “More Training Opportunity(더 많은 훈련의 기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초 10과목(1년 6개월)과 중급 20과목(2년)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현지 지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신학 교육 방침입니다.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강의소가 속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1 ~ 2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출석, 시험, 발표의 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과목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사역 구조



기초과정 10과목(총 520시간)



중급과정 20과목(총 400시간)

b. **교육 현황** - 주중, 야간, 주말, 주일(예배 후)까지 9곳의 신학 강의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출된 학생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강의소 운영이 독립된 관계로 매년 여러 차례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화, 목 낮 수업
(Kaklehong)



마세루 수요일 야간 수업
(Maseru)



하아비아 금요일 야간 수업
(Ha Abia)



센터 토요일 수업
(Sempheteyane)

열방을 향하여

C. 교회 개척 -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과 접촉하는 것은 현지인 지도자들의 몫이 되고,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의 몫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세운 지도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지만 처음 시작은 함께 진행합니다. 목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훈련과 양육을 겸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 목사님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통해 개척 지역 선정, 천막 집회 일정, 홍보, 진행을 합니다. 특히 모든 일의 진행은 마을 추장의 허락과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지인 지도자를 앞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2. 채플린 교육을 통한 기관 복음화

경찰과 교도관 채플린을 선발하여 신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과 중급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역 주민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마을과 재소자들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며, 범죄 예방과 재소자 교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도와 음식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국에 나눕니다.



매주 목요(초급) & 금요(중급) 경목 교육



경목들과 지역 가난한 주민



매주 목요(초급)& 금요(중급) 교도목 교육



교도목들과 지역 주민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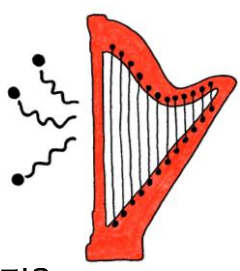
일반 신학 교육은 지역 교회 세움과 기독교 학교 설립으로 이어지고, 기관 신학 교육은 기관 복음화와 지역 주민 섬김으로 연결됩니다. 레소토 현지의 상황 속에서 신학 교육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누리아 퀴즈 ~ 가로 세로 퍼즐

오랜만에 돌아온 가로세로 퍼즐

	세로1					세로4
가로1					세로3	
	가로2	세로2				
세로5				가로3		
가로4						
						보너스

- 가로 1. 목적지와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난 성경 인물은 누구인가요?
- 가로 2.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를 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직을 포기한 사람은?
- 가로 3.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이 다루는 고전 이름은?
- 가로 4. 2부와 3부 찬양팀 모두에게 필요한 세션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ㅠㅠ)
- 세로 1. 정혜민 집사님은 어느 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카페를 하고 계실까요?
- 세로 2. 큰 소리, 높은 소리가나는 악기는?
- 세로 3. 시민 최애 찬송 3위 곡은?
- 세로 4. 치아를 지키는 예방 수칙 세번째는?
- 세로 5. 외젠브뤼낭은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요한과 누구를 그렸는가?
- 보너스. 이번 봄 호에 나온 악기 그림은 총 몇 종류인가? (맞추면 한 개 틀려도 봐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010-7712-9820 (문자 접수) ?!
(답장이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호 당첨자>
민숙이 / 이한나 / 이영애c
조보성 / 김보배 / 구신희
😊 축하드립니다~~ 😊
사무실에서 선물을 수령해 주세요!!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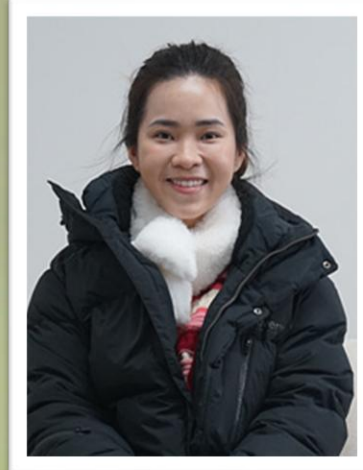
김옥주
(11월 23일)



김도윤
(12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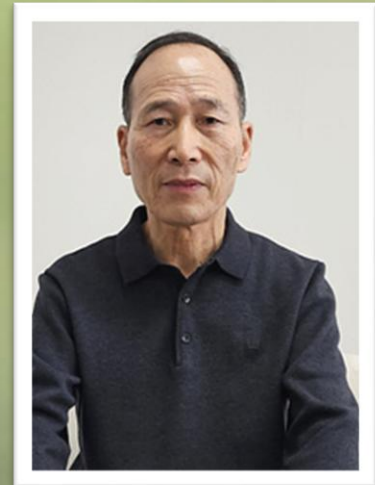
어성수
(12월 7일)



팜라은옥응안
(12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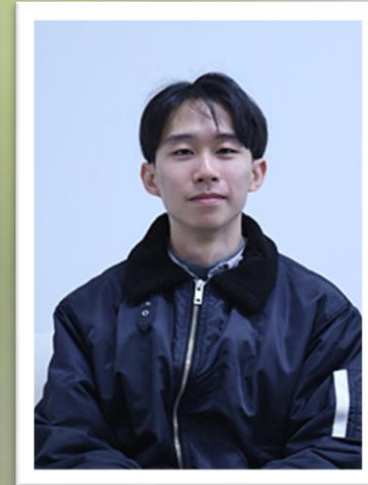
허진환
(12월 7일)



박현수
(12월 14일)



서동미
(12월 14일)



이규진
(12월 21일)



이수민
(12월 21일)



이수현
(12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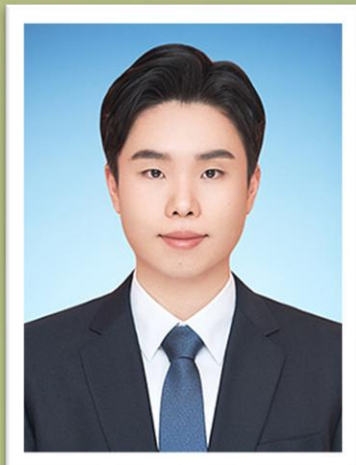


류재익
(1월 4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박선영
(1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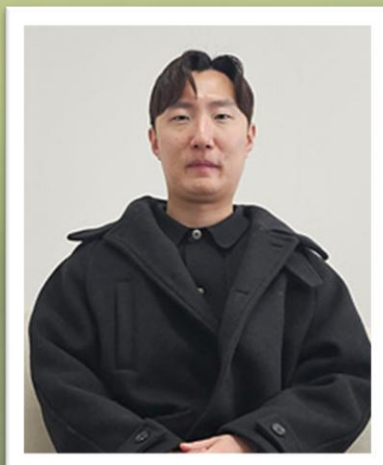
이석현
(1월 4일)



이효신
(1월 4일)



최태현
(1월 4일)



하경수
(1월 4일)



김명복
(1월 11일)



변말순
(1월 11일)



조선주
(1월 11일)



문대성
(1월 18일)



고용현
(2월 1일)

편집 후기

<한 줄 찬송>

1절

병국 숨결보다 가까이, 오늘도 나를 먼저 안고 계신 하나님


대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빈 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현욱 연약한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는 나의 참 좋은 아버지

영두 오늘 겪는 모든 일들이 내게 합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절

성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인혁 매일 매일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

태순 오늘도 날빛 사랑으로 바다 물결처럼, हे무하시는 나의 하나님

민희 찬송을 넘어, 삶이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편집 후기

<한 줄 찬송>

3절

춘혜 :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수진 :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이라

유림 : 흑암은 물러가고 새롭게 하심이 빛을 바라리

은영 : 닳고픈 이유 하나로 조용히 걸어가는 길 누군가의

밤길에 가만히 켜지는 작은 빛이 될 수 있길

진형 :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울산 시민교회

▶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목장 연합예배	1부	주일 오전 07:30	본관 3층예배실
	2부	주일 오전 09:30	본관 3층 예배실
	3부	주일 오전 11:45	본관 3층 예배실
	4부 싱글목장 (청년부)	주일 오후 14:00	교육문화센터 3층 다솜울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07:30	본관 3층 예배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05:30	본관 3층 예배실
외국인영어예배 (English Worship)		Sun. PM 12:00	Education Building 1st Floor
실버대학		봄,가을 학기 오전 10:00	본관 2층 예배실
몽골인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인 예배실

구분		시간	장소
교육부서	어린이교회 킹즈베이비 (4세이하)	주일 오전 11:30	본관 1층 킹즈베이비 예배실
	어린이교회 킹즈키즈 (5~7세)	주일 오전 11:30	본관 1층 킹즈키즈 예배실
	어린이교회 예답키즈 (1~3학년)	주일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2층 마루홀
	어린이교회 드림키즈 (4~6학년)	주일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4층 알음울
	어린이교회영어예배 (VIEW)	주일 오전 09:30	교육문화센터 6층 예배실
	소망부 (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6층 예배실
	청소년교회 파워틴 (중학생)	주일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3층 다솜울
	청소년교회 비전틴 (고등학생)	주일 오전 09:30	교육문화센터 3층 다솜울

▶ 오시는 길



▶ 예수님 영접모임 안내

울산시민교회 예수님 영접모임
 ※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시	일요일 - 오후 02:00 수요일 - 오전 10:00 토요일 - 오전 10:00
장소	울산 시민교회 본당 - 새가족실
문의	강성민 목사 (010-6677-3927)

전화 052-277-6091
070-7123-0221
팩스 052-277-6094

발행인 김창훈
편집장 이태순
부편집장 박진형

편집위원 김수현 김인혁 류민희 박은영
박춘혜 박현욱 윤성희 이다빈
이영두 전수진 전병국 정대한
최유림

발행처 울산시민교회
울산 중구 운곡안길 24
발행일 2026년 03월 01일